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국어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허 원 영

2019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어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도교수 최 대 희

허 원 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허원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송 현 정 (인)

위 원 배 영 환 (인)

위 원 최 대 희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6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critical consideration on the multicategory of word class in korean language

Heo, Won-young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Dae-h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9.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Choi, Dae-hee,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초록>

국어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허 원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최 대 희

이 연구는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공유되는 이른바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품사 통용'은 그 논의가 이론적으로 모호하여 해당 현상을 명확하게 정의해 내지 못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한계는 곧 사전 기술과 학교 문법의 영역에서 몇 가지 문제들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가 갖는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현상을 재기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품사 통용'의 기존 연구와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한다. 품사가 중복되는 현상은 '품사 통용' 외에도 '품사 전성'과 '영 파생' 등의 논의를 통해 설명된다. 그 중 '품사 통용'은 '기준의 부재'와 '방향성의 부재'라는 이론적 한계를 갖는다. 우선 전자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올바르게 규명되지 않아 해당 사례를 분류함에 있어 기준이 부재하는 한계를 말한다. 그리고 후자는 현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방향성'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한계는 곧 실용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품사 통용'의 경우 해당 현상에 대한 규범으로서의 논의로 사전 기술과 학교 문법에 적용된다. 그런데 '품사 통용'이 갖는 이론적 모호함은 사전에서 '품사 통용어'를 기술할 때 일관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학교 문법에서도 '체언 수식 부사'라는 문법적 오류를 파생시킨다. 결국 '품사 통용'은 그 이론적 한계에 따라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 문제를 갖는 논의이며, 이에 보다 비판적인 차원에서의 고찰을 필요로 하게 된다.

3장에서는 '품사 통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해당 현상을 재기술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우선 기존의 논의가 갖는 ‘방향성의 부재’를 보완하고자 그 개념을 다시 정의한다. 이때 ‘품사 통용’의 개념은 이와 대립되는 ‘품사 전성’과의 이론적 통합으로써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으로 기술된다. 이에 ‘품사 통용’의 개념은 기존의 [-방향성]이 아닌 [±방향성]으로 재설정되고, 품사의 공유에 대한 사례뿐만 아니라 품사의 이동에 대한 사례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의 논의가 갖는 ‘기준의 부재’를 보완하고자 해당 원인을 다시 규명한다. 그 결과 ‘품사 통용’의 원인으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과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이 새롭게 제시된다. 전자의 경우 단어란 그 기능과 의미를 단일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의 품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결국 한 단어에 여러 품사가 통용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후자는 이러한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과는 별개로 단어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공시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품사의 변화는 곧 품사의 통용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원인을 기준하여 해당 사례를 분류한다. 이에 ‘품사 통용’의 사례는 품사 개수에 따른 기존의 분류 외에도 ‘방향성’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방법이 추가된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품사 통용’이 갖는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차원에서 해당 현상을 재기술하려 한다. ‘품사 통용’에 관한 논의가 다소 고착되어 있는 시점에서 해당 현상은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름대로의 논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 결과이다.

핵심어 : 품사 통용, 기준의 부재, 방향성의 부재, 사전 기술, 학교 문법,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대상 및 방법 ····· 3
3. 논의의 구성 ····· 8

Ⅱ. 품사 통용의 기존 연구와 한계 ····· 10
1. 품사 통용 ····· 11
2. 품사 전성 ····· 17
3. 영 파생 ····· 19
4. 기존 연구의 한계 ····· 22
1) 이론적 한계 ····· 22
2) 실용적 문제 ····· 32

Ⅲ.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42
1. 품사 통용의 개념 ····· 43
2. 품사 통용의 원인 ····· 47
1)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 ····· 50
2)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 ····· 62
3. 품사 통용의 분류 ····· 71
1) 품사 개수에 따른 분류 ····· 72
2) 방향성에 따른 분류 ····· 75

Ⅳ. 맺음말 ····· 78

<참고문헌> ····· 82
<Abstract> ····· 8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 1> 사전 목록 ····· 7
<표 2> 2015년도 개정『중학교 국어 1』(2018) 목록 ····· 7
<표 3> 2015년도 개정『고등학교 언어와 매체』(2019) 목록 ····· 8
<표 4> 사전별 '품사 통용어'의 기술 양상 ····· 36
<표 5> 교과서별 '품사 통용'의 교육 양상 ····· 37
<표 6> 교과서별 '체언 수식 부사'의 교육 양상 ····· 39
<표 7> 품사 개수에 따른 '품사 통용'의 분류 ····· 73
<표 8> '방향성'에 따른 '품사 통용'의 분류 ····· 75

<그림> 목 차

<그림 1> 국어의 품사 분류 과정 ····· 57
<그림 2>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에 의한 '품사 통용'의 도출 과정 ····· 59
<그림 3>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에 의한 '품사 통용'의 도출 과정 ····· 70
<그림 4> '품사 통용'의 구조 ····· 7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머리말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공유되는 이른바 '품사 통용'[1]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품사 통용'은 해당 현상을 명확하게 정의해내지 못함에 따라 '품사 전성'[2], '영 파생'[3] 등으로 대체되거나, 현상 자체가 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결과적으로 관련 논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품사 통용'이 갖는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현상을 재기술하고자 한다.

문법론은 문법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발전해 왔다. 하나의 문법 현상일지라도 이에 대한 학자마다의 논리와 근거를 토대로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고, 이들은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며 보다 정확에 가까운 이론으로 다시 창출되었다. 현대 국어 문법에서 당연하다시피 여겨지는 이론들도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립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나침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가기보다는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품사 통용'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품사란 단어를 그 문법적 성질에 따라 분류한 갈래이다.[4] 이렇게 나눈 품사의 종류는 총 아홉 가지로 각각의 갈래마다 문법적 성질이 상이하게 나타난다.[5] 그

---

1) 남기심・고영근(2011: 167)에서는 '품사 통용'을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공유되는 현상이라 정의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는 '품사 통용' 외에도 '품사 전성', '영 파생' 등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품사 통용'을 기초 대상으로 삼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현상에 대해 모두 '품사 통용'이라 표기한다.

2) 최현배(1984: 719)에 의하면 '품사 전성'은 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품사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한다.

3) 송철의(1992: 265-266)에 의하면 '영 파생'은 한 단어가 영 접사의 결합으로 인해 다른 형태로 파생되는 현상을 뜻한다.

4) 이익섭(2013: 119)에서 참고.

5) 학교 문법의 기준에서 국어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분류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런데 간혹 이러한 문법적 성질이 중복되어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바로 ‘품사 통용’이라 일컫는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학자마다 관점을 달리함으로써 의견이 일치되기 힘들었다. 품사론의 관점에서는 ‘품사 전성’과 대립되었고, 조어론의 관점에서는 이를 ‘영 파생’이라 정의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해당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논의도 다수 이루어졌다. 이러한 견해 차는 하나의 문법 현상에 대한 생산적인 연구의 산물이라 여겨질 수 있겠으나, 실상은 ‘품사 통용’을 통해 해당 현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품사 통용’의 한계는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상에 대한 이론적 모호함은 곧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우선 사전에 단어가 기술되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른바 ‘품사 통용어’를 사전에 기술할 때 어느 단어는 ‘품사 통용’을 인정해 주는 반면, 어느 단어에서는 배제된다. 또한 ‘품사 통용어’를 각각 다른 단어로 보고 별도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전별로 단어의 품사가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품사 통용’은 사전 기술에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임의적 적용은 곧 품사 기술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품사 통용’과 관련한 문제는 학교 문법에서도 나타난다. 학교 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품사 통용’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와 상반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기도 한다. 이른바 ‘체언 수식 부사’[6]로 정의되는 품사 처리 방식이 그것이다. ‘체언 수식 부사’란 한 단어의 품사를 한 가지로 한정지음에 따라 나타나는 부사의 예외적 경우를 말한다. 즉 ‘체언 수식 부사’는 ‘품사 통용’에 반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법에서는 교육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이 둘을 동시에 가르치는 모순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품사 통용’이 갖는 이론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품사 통용’은 해당 현상을 명확하게 정의해 내지 못하는 것이기에 뚜렷한 기준이 부재하고, 이를 사전 기술에 적용할 때 일관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나아가 학교 문법에

6) 임지룡 외(2016: 190)에 의하면 학교 문법의 기준에서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예외적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를 부사의 예외적 기능으로 판단하고 ‘체언 수식 부사’라 정의한다. 예컨대 부사 ‘바로’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문장과 같이 체언을 수식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부사 ‘바로’가 곧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체언 수식 부사’인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는 이러한 이론적 모호함으로 인해 모순되는 두 내용을 동시에 가르치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품사 통용'은 그 이론적 한계에 따라 몇 가지 문제들을 유발하는 논의이며, 이러한 한계와 문제들을 통해 해당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품사 통용'이 갖는 이론적 한계와 실용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차원에서 해당 현상을 재기술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과 관련된 몇 가지 논의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현상은 주로 '품사 통용'으로 정의되지만 간혹 '품사 전성', '영 파생' 등의 논의를 통해 설명되기도 한다. 이때 각 논의들은 주장하는 바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대립한다.

우선 '품사 통용'은 홍기문(1927/1947)에서 처음 논의된 개념으로 남기심・고영근(1992/2011)에서는 이에 대해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공유되는 현상'이라 정의한다. 다음은 '품사 통용'에 해당하는 몇 가지 경우들의 예시이다.

(1) ㄱ.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명사>
ㄴ.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2) ㄱ.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수사>
ㄴ.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3) ㄱ.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형용사>
ㄴ. 이제 곧 날이 밝는다. <동사>
(4) ㄱ.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ㄴ.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감탄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의 ‘만큼’은 명사와 조사, (2)의 ‘열’과 ‘백’은 수사와 관형사, (3)의 ‘밝다’는 형용사와 동사, (4)의 ‘아니’는 부사와 감탄사로 쓰인다. 이를 ‘품사 통용’에서는 하나의 형태 안에 두 가지 이상의 품사가 공유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즉 ‘품사 통용’이란 품사의 공유에 관한 논의인 것이다.

한편, ‘품사 전성’은 최현배(1937/1984)에서 주로 논의된 개념으로 ‘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품사로 이동하는 현상’이라 정의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앞서 ‘품사 통용’의 예시로 제시된 단어들은 다음과 같이 이동의 방향이 추가되어 설명된다.

(5) ㄱ.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명사> →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ㄴ.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수사> →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ㄷ.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형용사> → 이제 곧 날이 밝는다. <동사>
ㄹ.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감탄사>

(5ㄱ)의 ‘만큼’은 명사에서 조사로, (5ㄴ)의 ‘열’과 ‘백’은 수사에서 관형사로, (5ㄷ)의 ‘밝다’는 형용사에서 동사로, (5ㄹ)의 ‘아니’는 부사에서 감탄사로 품사가 이동한다. 앞선 ‘품사 통용’에서 위의 예시들을 품사의 공유라 판단했던 것과는 달리, ‘품사 전성’에서는 이를 품사가 이동된 것으로 본다. 즉 ‘품사 전성’은 품사의 이동에 관한 논의라는 점에서 ‘품사 통용’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영 파생’은 송철의(1992)에서 주로 논의된 개념으로 해당 현상을 ‘한 단어가 영 접사의 결합으로 인해 다른 형태로 파생되는 현상’이라 정의한다. 다음은 ‘영 파생’에 해당하는 몇 가지 경우들의 예시이다.

(6) ㄱ. 띠 <명사> → [띠 + ∅ + 다] → 띠다 <동사>
ㄴ. 신 <명사> → [신 + ∅ + 다] → 신다 <동사>
ㄷ. 품 <명사> → [품 + ∅ + 다] → 품다 <동사>

(6)의 단어들은 명사와 동사 어간의 형태가 동일한 것들이다. ‘품사 통용’의 관점에서 이들은 하나의 단어이며, 명사와 동사가 공유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영 파생’에서는 명사인 단어에 영 형태의 접사가 결합함으로써 동사로 파생된 것이라 판단한다. 즉 (6ㄱ)의 ‘띠’와 ‘띠다’, (6ㄴ)의 ‘신’과 ‘신다’, (6ㄷ)의 ‘품’과 ‘품다’ 등은 파생 관계에 놓인 단어들이며,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단어들이기에 품사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 파생’에서는 해당 현상을 ‘영 접사’에 의한 파생의 결과로 판단함에 따라 앞선 견해들과 맥락을 달리한다.

이렇듯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은 ‘품사 통용’ 외에도 ‘품사 전성’과 ‘영 파생’ 등의 논의를 통해 설명된다. 또한 이때의 논의들은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봄에 따라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대립한다. 예컨대 ‘품사 전성’은 품사론적 관점에서 해당 현상을 해석하는 논의이기에 ‘품사 통용’과 이론적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품사 통용’은 공유되는 두 품사를 동등하게 처리한다는 점에서 품사 간에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품사 전성’은 이동되는 두 품사 간에 위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설정된다는 관점의 차이가 나타난다.[7] 나아가 ‘영 파생’은 해당 현상을 ‘영 접사’에 의한 파생의 결과로 보는 조어론적 관점의 견해이다. 이는 품사론적 관점을 취하는 앞선 두 견해와는 궤를 달리하는 논의인 것이다. 이상의 견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ㄱ. 품사 통용 :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공유되는 현상.
품사론적 관점 / [-방향성]
ㄴ. 품사 전성 : 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품사로 이동하는 현상.
품사론적 관점 / [+방향성]
ㄷ. 영 파생 : 한 단어가 영 접사의 결합으로 인해 다른 형태로 파생되는 현상.
조어론적 관점 / [+방향성][8]

---

7) 남수경(2011: 121-123)에서는 ‘품사 통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 ‘방향성’이라는 성질을 언급하였다. 이때의 ‘방향성’이란 기준 품사로부터 변화된 품사로의 이동에 대한 개념으로, ‘품사 통용’은 ‘품사 전성’과 달리 품사 간에 이동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품사 통용’에는 때에 따라 [+방향성]에 대해 더욱 설득력을 가지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품사 전성’과 이론적으로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기준하여 ‘품사 통용’의 하위 유형을 분류해 낸다. 즉 이를 통해 두 견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8) 김호중(2014: 7)에서는 남수경(2011: 121-123)에서 언급한 ‘방향성’을 기준하여 관련 견해들을 분류하였다. 위의 정리는 김호중(2014: 7)에서의 분류를 본문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연구는 앞서 제시한 견해 중 ‘품사 통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품사 통용’이 갖는 한계와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현상을 재기술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논의는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의 이론적 통합으로써 이루어진다. 결국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논의는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에 한하는 것이다. 다만 연구 목적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기초 대상은 ‘품사 통용’이며, ‘품사 전성’은 어디까지나 보충의 대상, 즉 통합되는 대상이다.

이러한 대상의 설정과 그 연구 방법에는 두 가지 근거의 제시를 요한다. 첫째는 ‘영 파생’이 배제되는 근거이며, 둘째는 남은 두 가지 견해 중 ‘품사 통용’을 기초 대상으로 삼는 근거이다. 우선 ‘영 파생’이 배제되는 이유는 연구 대상의 범주를 ‘한 단어’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영 파생’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을 파생의 결과로 처리함에 따라, 이를 서로 다른 단어 간의 품사 차로 판단한다. 즉 한 단어 내의 품사 중복을 인정하는 다른 두 견해와는 달리, 이를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대상의 범주에 벗어나는 논의인 것이다. 또한 남은 두 가지 견해 중 ‘품사 통용’을 기초 대상으로 삼는 근거는 ‘방향성’의 유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논의이기 때문이다.[9] 이 연구에서는 해당 현상을 ‘품사 통용’으로 정의하되, 그 성질은 기존의 [-방향성]이 아닌 [±방향성]으로 재설정한다. 이는 ‘품사 통용’이 온전히 [-방향성]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 [+방향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며, 이러한 판단과 그 근거에 따라 ‘품사 통용’을 기초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이때 추가되어야 할 [+방향성]의 성질은 ‘품사 전성’과의 통합으로써 보충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의 대상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과 관

9) 물론 기존에 논의되었던 ‘품사 통용’은 [-방향성]의 성질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이는 [+방향성]을 배제했다기보다 ‘방향성’ 자체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만약 ‘방향성’을 배제했다면 우선순위의 품사를 설정해야 하는 유형화 작업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품사 통용’은 ‘방향성’을 표면상으로 다루지만 않았을 뿐, 그 유형을 통해 우선순위의 품사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미 내포하는 성질로 봐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품사 전성’의 경우 [+방향성]의 성질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방향성]의 경우를 배제한 논의이다. 이 연구에서 재기술되는 ‘품사 통용’의 개념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방향성’에 따른 하위 범주를 추가적으로 다룬다. 즉 ‘방향성’에 구애받지 않는, ‘방향성’의 유무를 모두 포함하는 품사의 통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품사 통용’을 기초 대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방향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부분을 ‘품사 전성’과의 통합으로써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법론에서 기초가 되는 대상은 ‘품사 통용’이어야 하며, ‘품사 전성’은 이를 보충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련된 논의들 중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에 한하는 것이다. 나아가 ‘품사 통용’에 ‘품사 전성’을 통합하여 그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세부적인 원인과 분류에 대한 이론적 보충을 통해 보다 논리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현상을 재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기존의 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앞서, 관련 연구들을 개관하고 그 한계가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한계는 크게 ‘이론적 한계’와 ‘실용적 문제’로 구분되는 것이며, 특히 ‘실용적 문제’에서는 ‘품사 통용’이 사전 기술과 학교 문법에 적용되는 양상을 통해 그 문제가 확인된다. 이에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검토함으로써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을 함께 논하기로 한다.

<표 1> 사전 목록

번호	사전	편저자
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3	『연세 한국어사전』(199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표 2> 2015년도 개정 『중학교 국어 1』(2018) 목록[10)]

번호	교과서	저자	출판사
1	『중학교 국어 1-1』(2018)	김진수 외	비상교육
2	『중학교 국어 1-1』(2018)	노미숙 외	천재교육
3	『중학교 국어 1-1』(2018)	박영목 외	천재교육
4	『중학교 국어 1-1』(2018)	이삼형 외	지학사
5	『중학교 국어 1-2』(2018)	이도영 외	창비

10) 2015년도 개정 『중학교 국어 1』(2018)은 총 9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에 대한 교육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해당 논의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교과서만을 자료로 선정한다. 이에 2015년도 개정 『중학교 국어 1』(2018) 중 ‘비상교육, 천재교육(노), 천재교육(박), 지학사, 창비’의 5종을 연구의 자료로 선정하는 한편, ‘동아, 교학사, 금성, 미래엔’의 4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 2015년도 개정『고등학교 언어와 매체』(2019) 목록

번호	교과서	저자	출판사
1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2019)	민현식 외	천재교육
2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2019)	방민호 외	미래엔
3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2019)	이관규 외	비상교육
4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2019)	이삼형 외	지학사
5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2019)	최형용 외	창비

3. 논의의 구성

앞서 견지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때의 비판적 고찰은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품사 통용'의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분석한다.
둘째, '품사 통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나아가 해당 현상을 재기술한다.

기존 연구의 검토와 한계에 대한 분석은 2장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후 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품사 통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해당 현상을 재기술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논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장은 '품사 통용'의 기존 연구들을 개관하고 그 한계를 분석하는 부분으로 총 4개의 절로 구성된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품사 통용'의 기존 연구들 - '품사 통용', '품사 전성', '영 파생' -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후 4절에서는 앞서 검토된 논의들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때의 한계는 '이론적 한계'와 '실용적 문제'로 구분되는 것이며, 이렇게 제시되는 한계는 곧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근거가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장은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부분으로 총 3개의 절로 구성된다. 우선 1절에서는 ‘품사 통용’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다시 정의할 것이다. 이후 2절에서는 ‘품사 통용’의 원인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할 것이며, 이때의 원인으로는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과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을 제시한다. 나아가 3절에서는 ‘품사 통용’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품사 개수에 따른 분류와 ‘방향성’에 따른 분류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품사 통용’은 보다 논리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재기술된다.

4장은 맺음말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또한 ‘품사 통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는 이번 연구가 품사론의 영역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나아가 문법론 전체의 차원에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더불어 ‘품사 통용’ 연구의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시하기로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품사 통용의 기존 연구와 한계

품사(word class)란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부류(class)이다.[11] 품사로 단어를 분류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품사로써 단어를 분류하는 이유는 수많은 단어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가령 한국어의 경우만 하더라도 단어의 수가 수십만 가지에 달하는데, 이 많은 단어를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러한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생긴 것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품사인 것이다.

모든 분류가 그러하듯 품사 분류에도 기준이 있다. 흔히 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으로 드는 것은 '형태(form)', '기능(function)', '의미(meaning)' 등이다.[12] 그런데 이러한 품사 분류 기준으로는 모든 단어를 각각의 독립적인 범주에 종속시키기에 한계가 있다.[13] 이는 결과적으로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이른바 '품사 통용'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어의 품사 분류는 과연 실패한 것인가. 나아가 '품사 통용'은 품사 분류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본래 단어란 한 가지의 문법적 성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일정한 기준에 준거하여 완벽히 범주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품사 통용'은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상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비단 국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에 품사 분류에 따라 이

---

11) 구본관 외(2015: 160)에서 참고.
12) 구본관 외(2015: 161)에서 참고.
13) 국어의 품사는 '형태'의 기준에서 두 개의 부류(불변어, 가변어)로, '기능'의 기준에서 다섯 개의 부류(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로 분류된다. 즉 '형태'와 '기능'만으로는 국어의 아홉 품사를 모두 분류해 낼 수 없다. '의미'의 기준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아홉 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분류된다. 그런데 단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준거하여 완벽히 범주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의 기준은 몇 가지 단어에 한해서 중복된다. 즉 해당 기준으로는 단어를 완전히 분류해 낼 수 없으며, 이에 '품사 통용'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법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러한 현상이 축소될 여지는 있지만 결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14] 즉 '품사 통용'은 품사 분류의 실패로 인한 것이 아니며, '품사 통용'을 근거로 품사 분류가 실패했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품사 통용'을 품사 분류의 실패쯤으로 여겨 이에 대한 해소를 주장한다. 이처럼 '품사 통용'이 부정되는 이유는 해당 현상을 명확하게 정의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호하게 해석되어 문법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은 '품사 통용'을 부정하는 주장의 핵심 근거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품사 통용'은 곧 해당 현상을 부정케 했고, 나아가 그 원인을 기존의 문법 체계에서 찾게 함으로써 문법론의 기저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품사 통용'은 품사 분류의 실패로 인한 것도, 이를 통해 품사 분류가 실패했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만 있다면 모두 해소될 논란인 셈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 그리고 '영 파생'의 논의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근본적으로 문법적 성질의 중복에 대한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들이었다. 다만 견해마다 이론적으로 모호하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렇듯 '품사 통용'과 관련된 몇 가지 견해들은 모두 하나의 문법 현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의 문법 현상에 대한 부정을 초래한 바, 해당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장에서는 '품사 통용', '품사 전성', '영 파생' 등의 논의들을 개관하고 검토한다. 나아가 기존의 '품사 통용'이 갖는 한계와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품사 통용

'품사 통용'이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공유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품사

14) 구본관(2010: 194)에서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통용'은 홍기문(1927/1947)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8) 한 語詞를 반듯이 한 品詞에만 制限해 쓰는 것은 아니다. 이 品詞의 語詞가 저 品詞로도 通用되는 境遇가 잇다. 漢文과 같은 것은 거의 語詞마다 品詞의 通用을 가진다. 英, 獨, 佛等의 國語는 漢文같이 그러케 自由스럽지는 못하나 品詞의 通用이 적지 안타.[15]

이처럼 홍기문(1927/1947)에서는 "이 품사의 어사가 저 품사로도 통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언급함에 따라,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을 '품사 통용'이라 정의한다. 이때의 '통용'은 '서로 넘나들어 두루 쓰임'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따랐을 때, '공유(共有)'의 성격을 가진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즉 '품사 통용'이란 품사의 공유에 대한 논의인 것이다.

홍기문(1927/1947)에서의 논의는 이후 남기심・고영근(1992/2011)을 통해 적극 수용되었고, 나아가 그 유형이 세분화된다. 다음은 남기심・고영근(1992/2011)에서 유형화한 '품사 통용'의 예시이다.

(9) ㄱ. 그는 이지적이다. <명사> /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관형사>
ㄴ. 그의 한 평생이 행복스러웠다. <명사> / 평생 처음 듣는다. <부사>
ㄷ. 천세나 만세를 누리소서! <명사> / 만세! 대한독립 만세! <감탄사>
ㄹ. 들은 대로 다 적었다. <명사> / 내 말대로 하여라. <조사>
ㅁ. 거기가 어디예요. <대명사> / 나도 거기 갑니다. <부사>
ㅂ. 아홉을 더하여라. <수사> / 아홉 군데를 맞았다. <관형사>
ㅅ. 마음이 크다. <형용사> / 아이들이 큰다. <동사>
ㅇ. 보다 나은 생활을 해 보자. <부사> / 네가 나보다 낫구나. <조사>[16]

남기심・고영근(1992/2011)에서는 영문법의 기호화 표시를 따라 '품사 통용'을 유형화했다. 이에 따르면 (9ㄱ)은 명관류, (9ㄴ)은 명부류, (9ㄷ)은 명감류, (9ㄹ)

15) 홍기문(1977: 90)에서 참고.
16) 남기심・고영근(2011: 188-190)에서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명조류, (9ㅁ)은 대부류, (9ㅂ)은 수관류, (9ㅅ)은 형동류, (9ㅇ)은 부조류 등으로 유형화된다.[17] 이와 같은 이론적 보충 이후 '품사 통용'은 사전 기술과 학교 문법에서 받아들여지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다.

'품사 통용'에 대한 연구는 홍기문(1927/1947)의 논의를 수용하는 입장과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홍기문(1927/1947)의 논의를 수용한 연구에는 남기심・고영근(1992/2011), 고영근・구본관(2008/2018), 구본관(2010) 등이 있다.

남기심・고영근(1992/2011)에서는 '품사 통용'을 "단어 가운데 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즉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적 기능을 공유하고 있는 형식."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이와 대립되는 '품사 전성'에 대해서는 기준 품사의 설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품사 통용'이 보다 설득력 있는 논의임을 주장하였다.

고영근・구본관(2008/2018)에서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는 원인을 '임의적인 품사 분류', '통시적 변화의 과정', '의미상의 특성',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네 가지로 설명한다. 또한 명사와 동사 어간 혹은 명사와 용언의 활용형에 대한 '품사 통용', 체언과 조사의 결합 형태가 감탄사로 쓰이는 '품사 통용' 등 기존의 논의에 대한 범위를 보다 확장시키면서 연구의 다양성을 제시하였다.

구본관(2010)에서는 '품사 통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품사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품사 통용'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세워진 기준 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품사 통용'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문법 기술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품사 통용'을 부정하는 연구들에 대한 반론이 되었다.

---

17) 남기심・고영근(2011: 188)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문법 기호화의 예를 제시하였다.
ㄱ. He *works* well. <동사>
ㄴ. His *works* is good. <명사>
이처럼 '*work*'와 같은 단어는 두 가지 품사의 성질을 띤 것으로 기술된다. 이런 경우 영문법에서는 NV(명사 동사) 등으로 기호화하여 표시한다. 남기심・고영근(2011: 188)에서는 국어의 '품사 통용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호화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예컨대 명사와 관형사가 통용되는 경우는 '명관류'로, 명사와 부사가 통용되는 경우는 '명부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편, ‘품사 통용’을 인정하지 않는 연구들에는 서태룡(2000/2006/2013)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도 남수경(2011), 이현희(2011), 이정택(2012), 김호중(2014) 등이 있다.

서태룡(2000)에서는 품사 분류의 기준을 새로 하여 국어의 기본 통사 범주를 명사, 동사, 수식사, 어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이는 ‘품사 통용’을 품사 분류의 수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 하나의 방안이다. 이후 서태룡(2006)에서는 ‘품사 통용’을 전면 부정하였다. 이에 ‘품사 통용’은 품사 분류 기준의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분류 기준의 조정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보다 전개시켰다. 또한 ‘품사 통용’이 사전 기술과 학교 문법 교육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어 문법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서태룡(2013)에서도 ‘품사 통용’은 품사 분류 기준이 수식 기능의 차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으며, 품사 분류 기준의 수정에 따른 ‘품사 통용’의 해소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수경(2011)에서는 ‘품사 통용’이 전제하는 ‘한 단어(혹은 하나의 단어)’라는 용어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사전에서 다른 표제어로 처리되는 단어임에도 형식이 동일하고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면 모두 ‘한 단어’로 처리함에 따라 그 범주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은 현상 자체에 관해서 크게 다른 개념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비춰 볼 때, ‘품사 통용’은 용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보다 정립될 필요가 있는 논의임을 강조하였다.

이현희(2011)에서는 품사를 일종의 원형적 구조를 가진 범주로 파악하고자 했다. 즉 품사를 고정된 것으로 보는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단어마다 전형성 정도의 차이에 따라 범주가 중복될 수 있다고 하며, 기존의 ‘품사 통용’과는 다른 ‘범주 중복’을 제시하였다.

이정택(2012)에서는 ‘품사 통용’의 표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큰 범주로의 통합을 강조했다. 예컨대 ‘품사 통용’은 단지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며, 기존의 품사에서 체언이나 용언 등의 큰 범주로 부류를 통합시킨다면 굳이 이러한 예외적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호중(2014)에서는 명사와 대명사, 명사와 수사의 통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명사이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더불어 품사가 이처럼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범주화의 실패라고 주장함에 따라 품사 분류 자체에 대한 문제를 논하였다.

이와 같이 '품사 통용'의 연구는 이를 수용할 것인가 혹은 수용하지 않을 것인가의 대립으로써 진행되어 왔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홍기문(1927/1947)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보충·심화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전개되었다. 반면, 이에 반하는 입장에서는 품사의 재분류를 통한 '품사 통용'의 해소라는 거대한 맥락의 일치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후자의 연구들은 품사의 중복 현상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품사 통용'의 이론적 모호함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직시하고, 이러한 현상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품사 통용'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었는데, 사전 기술에서의 연구와 학교 문법 교육에서의 연구가 그것이다. 우선 사전 기술에서의 '품사 통용'에 대한 연구는 김슬옹(1992), 한정한(2011), 손성락(2012), 한희정(2013), 한정한·한희정(2013) 등이 있다.

김슬옹(1992)에서는 사전 기술의 합리성에 비춰 볼 때, '품사 통용'은 적합하지 않은 이론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하나의 어휘는 하나의 품사이며, 다만 여러 성분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 하였다. 반면, 한정한(2011), 한희정(2013), 한정한·한희정(2013) 등에서는 오히려 '품사 통용'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며, 사전 기술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일관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또한 손성락(2012)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을 토대로 '품사 통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에 '동등 처리'와 '차등 처리'의 방식[18]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문법 교육에서의 '품사 통용'에 대한 연구에는 최형기(2011), 김홍범·전후민(2013), 김한샘(2014), 엄혜성(2016), 엄혜성·오현아(2016), 김은진

18) 손성락(2012: 100)에 의하면 '동등 처리'는 앞선 품사가 의미의 근원이 되고 뒤의 품사는 근원에서 갈려나온 관계의 '품사 통용어'를 처리하는 방법이며, '차등 처리'는 앞선 품사가 그 단어의 주 기능을 하고 뒤의 품사는 부 기능을 하는 종류의 '품사 통용어'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17) 등이 있다.

최형기(2011)에서는 ‘품사 통용’을 활용한 국어의 품사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품사 통용’의 처리 문제는 학습자들의 주도적·창의적 태도를 신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엄혜성(2016), 엄혜성·오현아(2016), 김은진(2017)에서는 최근의 문법 교육은 문법 지식을 강요하기보다 이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것이 권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품사 통용’은 이에 어울리는 좋은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홍범·전후민(2013)에서는 교과서를 분석하며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학교 문법에서 ‘품사 통용’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실상은 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적 모순에 대해 비판하였다. 나아가 김한샘(2014)에서는 ‘품사 통용’이 문법 교육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 수준으로서의 정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품사 통용’은 실용적인 영역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물론 이 안에서도 ‘품사 통용’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는 분분하지만, 결과적으로 ‘품사 통용’이라는 논의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들이었다. 다만 남수경(201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품사 통용’은 아직 용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보충이 필요한 논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적용에 관한 논의는 다소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양지애(2015), 박지영(2017) 등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품사 통용’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시도를 보였다. 양지애(2015)에서는 ‘품사 통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남수경(2011)에서 지적한 ‘한 단어’라는 용어를 배제하고 ‘품사 통용’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였다. 박지영(2017)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론적인 보충의 차원에서 그간 ‘품사 통용’의 원인으로 다루지 않았던 ‘문법화’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현상학적인 연구의 양상을 타파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 역시 ‘품사 통용’의 기존의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해결을 이루지는 못한 바, ‘품사 통용’은 여전히 이를 부정하는 주장에서 자유롭지 않은 논의로 남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품사 전성

‘품사 전성’이란 ‘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품사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품사 전성’은 주시경(1910)에서 ‘기몸박굼’이라는 용어를 통해 처음 논의되었고, 이후 주시경(1913)에서 ‘씨몸박굼’이라 정의되었다.[19] 나아가 최현배(1937/1984)에서 이러한 논의를 수용하여 ‘품사 전성’을 ‘씨의 몸바꿈’이라 정의하였다. 다음은 최현배(1937/1984)에서 정의하는 ‘씨의 몸바꿈’, 즉 ‘품사 전성’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10) 씨의 몸바꿈(品詞의 轉成)이란 것은, 이미 다 이뤄 진 씨가 그 몸을 바꾸어서 다른 갈래의 씨로 되는 것을 이름이니라.
여기에 말하는 씨의 몸바꿈이란 것은, 이미 다 이루어 져서 어떠한 특수(特殊)한 갈래로 되어 있는 씨가 다시 다른 씨갈래(品詞)로 그 몸을 바꾸는 것을 말함이니 : 낱말의 바탈갈(品詞의 性質論)에서 낱말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것과는 딴판이니라.[20]

이처럼 최현배(1937/1984)에서는 “이미 다 이뤄 진 씨가 그 몸을 바꾸어서 다른 갈래의 씨로 되는 것”이라 하며, 이때의 ‘몸바꿈’을 ‘이동(移動)’의 개념인 ‘전성’으로 정의한다. 즉 ‘품사 전성’이란 품사의 이동에 대한 개념으로 ‘품사 통용’과는 관점을 달리하는 논의인 것이다.

나아가 최현배(1937/1984)에서는 몸바꿈의 법(품사 전성의 유형)을 ‘다른 아무것을 더하지 아니하고 그 본형 그대로 다른 씨로 몸 바꾸는 것’, ‘씨가지를 더하여서 다른 씨로 몸 바꾸는 것’, ‘이미 이루어진 다른 씨와 어울러서 몸 바꾸는

19) 박영환(1982: 54-58)에 의하면 『국어문법』(1910)에서 “각 기의 결에를 서로 박구어 씀이 있으니 이를 기몸박굼이라 이름이라.”라고 언급한 것에 따라 이때의 ‘기몸박굼’은 ‘품사 전성’의 의미를 갖는 용어로 판단된다. 이후 『조선어문법』(1913)에서는 용어의 변화에 따라 이를 ‘씨몸박굼’으로 다시 정의하였으며, 두 용어의 의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품사 전성’은 주시경(1910/1913)에서의 ‘기몸박굼’, ‘씨몸박굼’을 통해 처음 논의된 것으로 확인된다.
20) 최현배(1984: 719)에서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것’ 등의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또한 각 유형별 예시를 함께 제시하여 그 설명을 더하였다. 다음은 최현배(1937/1984)에서 제시하는 ‘품사 전성’의 유형별 예시 중 일부이다.[21]

(11) ㄱ. 이름씨(명사) → 어찌씨(부사) : 정말, 참, 참말,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
ㄴ. 대이름씨(대명사) → 어찌씨(부사) : 여기, 거기, 저기, 어데, 언제, 이리, 그리, 저리
ㄷ. 어찌씨(부사) → 이름씨(명사) : 다, 모두, 조금, 스스로, 서로, 오래
ㄹ. 매김씨(관형사) → 대이름씨(대명사) : 이, 그, 저
ㅁ. 이름씨(명사) → 대이름씨(대명사) : 군(君), 신(臣), 생(生), 복(僕), 우(遇), 고명(高明), 좌하(座下)
ㅂ. 그림씨(형용사) → 움직씨(동사) : 크다, 돋다, 붉다, 길다[22]

이처럼 최현배(1937/1984)에서는 ‘방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품사 통용’과 달리 품사의 중복을 곧 품사의 이동으로 해석하였다. 물론 궁극적으로 한 단어에 여러 품사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품사 통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여지는 있다. 다만 ‘방향성’의 유무라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오늘날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그 관계가 굳어진 바, 별개의 논의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본다.

‘품사 전성’에 대한 연구는 ‘품사 통용’의 연구가 홍기문(1927/1947) 이후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된 것과는 달리 최현배(1937/1984) 이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물론 주시경(1910/1913)과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는 대체로 주시경(1910/1913)의 문법 이론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라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최현배(1937/1984)를 제외하고는 ‘품사 전성’에 대한 독창성

21) 최현배(1984: 720)에서는 본문의 예시 외에도 다음과 같이 씨끝을 더하거나 떼어버림에 따라 품사를 달리하는 경우 또한 ‘품사 전성’의 예시로 다루고 있다.
ㄱ. 이름씨(명사) → 그림씨(형용사) : 풀(草) → 푸르다(靑)
ㄴ. 어찌씨(부사) → 움직씨(동사) : 덛 → 덜다(덛+다)
ㄷ. 어찌씨(부사) → 그림씨(형용사) : 오래 → 오래다(오래+다)
ㄹ. 움직씨 줄기(동사 어간) → 이름씨(명사) : 가물다 → 가물(旱)
다만 이러한 예시는 씨끝을 더하거나 떼어버림이 대게 파생의 양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영파생’의 일례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론적으로 위의 예시는 ‘품사 전성’의 이해에 다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이기에 본문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22) 최현배(1984: 720)에서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띠는 연구가 크게 없고, 최근까지도 그 논의를 보충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에 따라 '품사 전성'의 연구는 크게 주시경(1910/1913), 최현배(1937/1984) 그리고 박영환(1982) 등에 한해서 검토될 수 있겠다. 참고로 박영환(1982)에서는 주시경(1910/1913)으로부터 시작된 '품사 전성'의 전승 상황을 주로 정리하였으며, 이밖에도 용어 및 개념의 정리,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겸하였다. 또한 일부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품사 전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발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였다.

3. 영 파생

'영 파생'이란 '한 단어가 영 접사의 결합으로 인해 다른 형태로 파생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영 파생'에 대한 연구는 안병희(1965)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하지만 안병희(1965)에서는 이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만 다뤄졌으며, 사실상 '영 파생'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심재기(1982)부터였다. 심재기(1982)에서는 '零變化(Zero modification)', '接尾法(Suffixiation)', '反復法(Reduplication)' 등 세 가지 어휘 형성 기제를 설정하고 이로 인한 어휘 형성의 양상을 다루었다. 나아가 '영 파생'과 관련해서 명사의 동사화, 동사・형용사의 부사화 등을 논의하며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 역시 '영 파생'에 한한 전반적인 연구는 되지 못했다. 이후 송철의(1992)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전개된 바, '영 파생'을 'conversion', 'zero-derivation', 'zero-modification' 등의 용어로서 정의하게 된다. 다음은 송철의(1992)에서 정의하는 '영 파생'의 내용이다.

(12) conversion이란 용어는 '품사전성'이란 의미일 것이다. 여기에는 원래는 파생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zero-modification이란 용어는 '무접사파생'을 의미한다. 즉, 접사의 첨가 없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파생어형성의 한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다. 국어 형태론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영변화파생'이란 말은 이 용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번역일 것이다. 한편, zero-derivation이란 '영접사'(zero affix)에 의한 파생이란 의미이다. 여기서 zero는 phonological-null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용어에 대한 적절한 번역은 '무형의 접사에 의한 파생' 정도가 될 것이다. zero-modification과 zero-derivation은 零接辭(혹은 零形態素)를 설정하느냐 설정하지 않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영접사를 설정하지 않는 입장이고 후자는 영접사를 설정하는 입장이다. 우리는 영접사를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영접사파생'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23]

이처럼 송철의(1992)에서는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을 '영접사의 파생으로 인한 현상'(zero-derivation), 즉 '영 파생'이라 판단한다. 더불어 '영 파생'이라는 용어에 대해 "어떤 어휘항목(단어)이 형태상의 변화 없이 의미상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통사범주를 달리하게 되는 형태론적 절차로서의 개념."이라 정의했다. 이는 앞선 품사 영역에서의 논의들과 달리 단어 형성의 입장, 즉 조어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 파생'의 경우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품사가 포함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이를 파생 관계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견해들과 차별된다.

이후 이익섭・채완(1999)에서는 '영 파생'을 특수 파생 형성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실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 파생'의 논의는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수용되었다. 다음은 이익섭・채완(1999)에서 제시하는 '영 파생'의 예시이다.

(13) ㄱ. 가물다/가물, 누비다/누비, 되다/되, 띠다/띠, 뭉치다/뭉치, 빗다/빗, 신다/신, 품다/품
ㄴ. 잘못, 오늘, 서로 / 크다, 길다[24]

이익섭・채완(1999)에서는 (13ㄱ)에 대해 "동사 어간과 명사가 서로 동일한 형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들로 어느 한쪽 형태가 다른 쪽 형태에서 파생했다고 보면 좋은 예들."이라 주장한다. 다만 (13ㄱ)의 예시가 파생 관계의 설정이 비교

23) 송철의(1992: 266)에서 참고.
24) 이익섭・채완(1999: 96)에서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 뚜렷한 것에 비해, (13ㄴ)의 예시는 파생 관계의 설정에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경우 오히려 '품사 전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25] 이처럼 송철의(1992) 이후로 논의되는 '영 파생'의 경우 그 예시가 명사와 동사 어간 사이의 관계로 한정된다. 이는 '영 접사'를 무리하게 설정하는 것에 대한 문법적 불합리성이 고려된 결과이며, 초기 '영 파생'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영 파생'에 대한 연구는 '품사 전성'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크게 조명되지 못했다. 다만 안병희(1965), 심재기(1982), 송철의(1992) 등으로 이어져오는 연구는 그 독자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이며, 이후 이익섭・채완(1999), 황화상(2013) 등을 비롯한 여러 문법이론서에서 '영 파생'이 특수 파생의 한 갈래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할 만하다. 또한 최근 임지현(2012)에서 '영 파생'의 유형을 다시 정리하고, 단어의 자생적 변화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영 접사' 설정의 근거를 논의한 바, 드물지만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임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영 파생' 자체를 부정하는 연구도 몇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창섭(2008)이 있다. 김창섭(2008)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영 파생'의 예시를 '품사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영 파생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영 파생이 아닌 통시적 굳음의 결과 혹은 초월적 인용의 결과라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에 따라 접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으로 반박하였다. 또한 이러한 예들이 '의미 전이'의 개념 안에 포괄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영 파생'을 전면 부정하였다.

---

25) 이익섭・채완(1999: 97)에서는 이에 대해 '가물다/가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가물다/가물'의 경우 '가물다'에서 명사를 파생시키려면 '가물애' 혹은 '가물음(가뭄)' 쯤으로 만드는 것이 정상적이며, '가물'에서 동사를 파생시키려면 '가물하다'의 식이 되어야 한다. 즉 어떠한 방향으로든 파생 과정에서 접사가 붙는다. 그런데 '가물다'와 '가물'의 경우 파생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됨에도 접사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 영 형태의 접사, 즉 '영 접사'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잘못, 오늘, 서로(명사와 부사를 겸하는 것)' 등이나 '크다, 길다(형용사와 동사를 겸하는 것)' 등은 품사 간에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에서 파생 관계를 설정하기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들에 한해서는 '영 파생'보다 '품사 전성'이 설득력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기존 연구의 한계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 그리고 ‘영 파생’의 논의는 서로 관점을 달리하여 대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사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한 것이기에,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일치가 필요하게 된다. 오늘날 사전 기술과 학교 문법 교육에서는 이 중 ‘품사 통용’을 수용함에 따라 이를 규범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의 영역에서 ‘품사 통용’은 오히려 소홀해 지고, 이에 반하는 사례들이 다뤄지기도 한다. 즉 ‘품사 통용’을 수용함과 동시에 배제시키는 모순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아가 ‘품사 통용’은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논의이다. 이처럼 ‘품사 통용’이 부정되는 이유는 해당 현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품사 통용’이 갖는 이론적 한계에서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품사 통용’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품사 전성’과 ‘영 파생’ 역시 이러한 이론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렇듯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 그리고 ‘영 파생’은 모두 한계가 분명한 논의들이며, 어느 하나 해당 현상을 분명하게 정의해 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모호함은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몇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즉 ‘품사 통용’이 규범으로서 소홀해지고 배제됨은 다름 아닌 그 이론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필요하며, 각 견해들 간의 대립 역시 해소해야 하기에, ‘품사 통용’에 대한 논의는 보다 비판적인 차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논의들이 갖는 이론적 한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중 ‘품사 통용’에 대한 몇 가지 실용적인 문제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해당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론적 한계

(1) 품사 통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품사 통용’의 이론적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기준의 부재’ 혹은 ‘원인의 부재’이며, 다른 하나는 ‘방향성의 부재’이다. 우선 전자의 경우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올바르게 규명되지 않아 이를 분류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를 말한다.[26] 기존의 ‘품사 통용’은 그 원인이 다음의 네 가지를 통해 제시된다.

(14) ㄱ. 임의적인 품사 분류
ㄴ. 통시적 변화의 과정
ㄷ. 의미상의 특성
ㄹ.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27]

이 중 (14ㄴ)과 (14ㄷ)은 현상에 대한 원인을 문법적인 변화의 과정 혹은 문법적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해당 유형을 범주화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제시되기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14ㄱ)과 (14ㄹ)이다.

우선 ‘임의적인 품사 분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품사 분류의 임의성이라는 다소 단편적인 판단에 의탁하고 있다.[28] 더군다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

26)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법 현상에 대한 원인은 그 문법 현상의 사례를 분류함에 있어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문법 현상에 대한 원인을 통해 그 사례를 분류해 내지 못한다면, 그러한 원인은 다시 규명되는 것이 마땅하다.

27) 고영근・구본관(2018: 54)에서는 ‘품사 통용’의 원인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품사 분류가 임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표적인 경우로는 ‘수관류’, ‘명관류’, ‘형동류’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하나의 품사로 통일될 수 있는 사례로 본다. 둘째, 통시적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표적인 경우로는 ‘명조류’, ‘조부류’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단어의 쓰임이 변화함에 따라 둘 이상의 품사적 기능을 갖게 된 사례이다. 셋째, 의미상의 특성 때문이다. 이에 대표적인 경우로는 ‘부감류’, ‘명부류’, ‘대부류’ 등이 있으며, 이들에 포함되는 단어들은 둘 이상의 품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품사가 통용되어 나타나게 된다. 넷째,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명동류’가 이에 해당한다.

28) ‘품사 통용’은 기본적으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이러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이 곧 임의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임의적이라는 것은 원칙이나 기준이 없음을 일컫는다. 그러나 품사 분류에는 분명한 기준이 존재한다. 고영근・구본관(2018: 54)에서는 품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주를 넘나드는 단어들이 다소 확인되기 때문에 ‘임의적인 품사 분류’를 그 원인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품사 분류가 임의적이라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단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완벽하게 범주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사 분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품사 통용’이 일어나는 것일 뿐, 결코 품사 분류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임의적인 품사 분류’는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현상에 대한 이유조차 규명해 내지 못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명사와 동사의 '품사 통용'이 주로 다뤄지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두 품사 간의 통용 관계를 증명해 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품사 통용'에서는 이 둘을 하나의 사례로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외형상 '품사 통용'으로 보인다는 점, 중세국어에서는 동사 어간이 자립해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29] 등을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사례를 '품사 통용'의 유형으로 포함시키면서도 정작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원인들은 올바르게 규명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처럼 '품사 통용'은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하위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기준이 부재하는 한계를 갖는다. 더군다나 '품사 통용'은 그 범주를 다소 무리하게 설정하여 동일한 형태를 갖는 단어들에 한해 광범위한 유형의 설정을 이루었다.[30] 이에 문법론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품사 통용'을 부정하고, 이를 해소하자는 주장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품사 통용'은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한 현상이므로, 그 범주가 광범위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다만 '품사 통용'의 문제는 광범위한 범주 속에서도 이를 분별할 기준마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할 수만 있다면,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분류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품사 통용'에 대한 해소보다 오히려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본다.

---

29) 고영근・구본관(2018: 60-61)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통용에 대해 과거 중세국어의 경우 동사 어간이 자립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몇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가 고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사실상 동사 어간이 어미 없이 쓰일 수 있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논증된 바가 없으며, 더군다나 현대 국어에서의 동사 어간은 자립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판단할 때 명사와 동사의 통용을 인정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불합리한 처사이며, 이는 '품사 통용'이 그 범주를 다소 무리하게 설정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품사 통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특수 파생의 한 부류인 '영 파생'의 사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을 지적한다.

30) 서태룡(2006: 359-361)에서는 국어의 '품사 통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었으며, 조금 과장해서 거의 모든 단어가 '품사 통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품사 분류의 수정으로써 '품사 통용'을 몰아내자는 주장을 하였다. 필자 역시 서태룡(2006: 359-361)에서의 주장처럼 기존의 '품사 통용'은 그 범주의 설정이 다소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광범위한 설정은 해당 현상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닌, 그 기준이 부재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품사 통용'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통한 기준의 마련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구본관(2010: 194)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품사 분류의 수정을 통해 '품사 통용'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단어의 본질적 특성상 '품사 통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편, ‘품사 통용’은 ‘방향성의 부재’라는 또 다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품사 통용’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공유되는 현상’이다. 이때 ‘공유(共有)’란 대상에 대한 공동의 소유를 나타나내는 단어이다. 즉 한 단어에 포함되는 둘 이상의 품사는 별도의 위계 없이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품사 통용’에서는 ‘방향성’이 따로 고려되지 않는, 즉 [-방향성]을 전제로 현상을 정의했음이 추론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는 ‘품사 통용’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 모순을 갖는다.

‘품사 통용’의 유형은 남기심・고영근(1992/2011)에서 영문법의 기호화 표시를 차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품사 통용’의 유형은 ‘명관류’, ‘명부류’ 등의 용어와 같이 공유되는 품사들의 앞 글자를 합성한 형태로 표기된다. 이때 ‘명관류’나 ‘명부류’ 등에서 명사가 관형사 혹은 부사에 앞서 표기되는 것은 공유되는 두 품사 사이에서 명사를 보다 우선순위의 품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기심・고영근(1992/2011)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설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5) ‘평생’은 명부류로서 ‘길이, 높이, 처음, 자연’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흔히 부사로 쓰이는 ‘서로, 모두, 더러, 다’가 격조사를 취하면 명사가 되기도 하는데 이 부류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이때는 ‘부명류’라고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31]

즉 ‘품사 통용’의 유형에서는 공유되는 품사 사이에 우선순위가 고려된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유형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선순위의 품사가 설정된다는 것은 한 단어에 공유되는 두 품사 중 기본이 되는 품사와 문법적 변화의 과정상 추가된 품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32] 다시 말해 ‘품사 통

31) 남기심・고영근(2011: 189)에서 참고.

32) 남기심・고영근(2011: 189)에 의하면 ‘서로, 모두, 더러, 다’ 등의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부사인데, 격조사를 취하게 됨에 따라 명사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미뤄 짐작했을 때, ‘서로, 모두, 더러, 다’ 등은 [+방향성]의 성질을 지닌 통용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예시에는 국어사적 검증이 필요하며, 모든 통용의 사례가 이처럼 [+방향성]의 성질을 지니는 것도 아니다. 기존 ‘품사 통용’의 설정대로 두 품사가 서로 동등하게 공유되어 [-방향성]의 성질을 갖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 유형의 분류와 [+방향성]을 전제로 하는 몇 단어들을 볼 때, ‘품사 통용’은 ‘방향성’이 부재하는 논의라는 점에 한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곧 ‘품사 통용’이 [-방향성]과 [+방향성]의 사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즉 [±방향성]의 개념으로 재기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용’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품사 통용’의 사례 중에서는 [+방향성]을 전제로 하는, 즉 ‘품사 전성’으로 설명하기에 보다 적합한 사례들도 있다.

(16) ㄱ. 대로, 만큼, 뿐
ㄴ. 진짜, 아니, 정말

(16ㄱ)의 ‘대로, 만큼, 뿐’ 등은 명사와 조사가 통용되는 사례이며, (16ㄴ)의 ‘진짜, 아니, 정말’ 등은 명사와 부사 그리고 감탄사가 통용되는 사례이다. ‘대로, 만큼, 뿐’과 같은 단어들은 명사가 조사로 변화되는 과정에 놓인 단어들로 품사의 이동이 명백하게 드러나기에, ‘품사 전성’의 사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같은 맥락에서 ‘진짜, 아니, 정말’ 등은 명사 혹은 부사가 구어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감탄사로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법적 변화의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품사의 이동이 증명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 역시 ‘품사 통용’보다는 ‘품사 전성’의 사례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33]

이렇듯 ‘품사 통용’에서 전제하는 [-방향성]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성질이라 볼 수 없다. 물론 ‘품사 통용’이 [-방향성]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품사 전성’이 [+방향성]만을 전제로 하는 것과는 달리 ‘품사 통용’에서는 애초에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공유라는 용어의 뜻풀이에서 [-방향성]을 추론한 것이기에, 사실상 ‘품사 통용’은 [+방향성]을 배제한 논의라기보다 ‘방향성’ 자체를 고려하지 못한 논의인 것이다. 즉 ‘품사 통용’은 ‘방향성’이 부재한 논의이며, 이로 인해 이론적인 결함이 드러난다. 나아가 ‘방향

33) 이러한 사례들에 한정할 경우 ‘품사 통용’보다 ‘품사 전성’이 더욱 설득력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품사 통용’에는 [-방향성]의 성질을 지니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 예컨대 ‘평생, 어제’ 등과 같이 명사와 부사가 통용하는 단어들은 기본 품사를 별도로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 품사의 이동이 아닌 공유라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즉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은 각각의 조건에 만족하는 사례가 분리됨에 따라 선불리 어느 한쪽의 개념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품사 전성’은 [-방향성]을 애초에 배제한 논의라는 점이다. 이에 반해 ‘품사 통용’은 개념상 [-방향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지언정 [+방향성]을 배제한 논의는 아니다. 더 정확히는 ‘방향성’ 자체를 고려하지 못한 논의라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품사 통용’은 이론적 보충의 가능성을 보이는 반면, ‘품사 전성’은 [-방향성]의 성질이 보충될 수 없다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 ‘품사 통용’을 기초 대상으로 삼고 이에 ‘품사 전성’을 통합하는 방법을 택한 이유 역시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성’에 대한 이론적 보충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품사 전성’과의 차별성은 사라지게 된다.[34] 다시 말해 남수경(2011)에서의 지적과 같이 ‘품사 통용’은 ‘품사 전성’과 이론적으로 차별화된 논의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품사 통용’은 그 원인이 올바르게 규명되지 않아 하위 유형을 범주화함에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과 품사가 통용되는 관계에 있어 ‘방향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이론적인 한계를 갖는다. 전자의 한계는 ‘품사 통용’의 범주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됨에도 이를 변별할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에 실용적인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후자의 한계는 결론적으로 ‘품사 전성’과의 차별성을 퇴색시킨 바,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이 이론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2) 품사 전성

‘품사 전성’은 기준이 되는 품사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 이론적 한계가 나타난다. ‘품사 전성’의 경우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을 품사의 이동으로 정의한다. 즉 ‘품사 전성’은 해당 현상에 대해 [+방향성]의 성질을 전제하는 논의인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방향성’은 품사 간에 위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품사 전성’은 그 정의에 따라 기준이 되는 품사와 전성된 품사로 위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 품사의 설정은 해당되는 모든 단어에 대한 국어사적 검토와 증명이 필요한 작업이기에 큰 부담을 요구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기준 품사를 명확하게 변별해 낼 수 있는 사례도 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역시 존재하기에, ‘품사 전성’은 모든 사례에 적용되기 어려운 논의인 것이다. 최현배(1937/1984)에서는 이러한 ‘품사 전성’의 이론적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34) 남수경(2011: 121-123)에서는 ‘품사 통용’의 문제로 ‘품사 전성’과의 이론적 차별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방향성’과 관련하여 두 개념의 이론적 한계를 제시하고, ‘품사 통용’에 대한 이론적 보충을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자 하였다. 그 해답은 [±방향성]의 설정, 즉 ‘방향성’에 따른 세부 유형의 분류를 통한 두 논의의 통합이다. 이와 별개로 남수경(2011: 109-114)에서 제시하는 ‘한 단어’의 용어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기존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바, 이는 ‘한 단어’라는 용어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7) “그대로의 씨몸바꿈”(品詞轉成)에는, 그 두 가지의 씨 사이에 어느 것이 밑(本)이 되고, 어느 것이 끝(末) 곧 된 것(轉成된 것)이 되는지? 이것이 저것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이것으로 된 것 같기도 하여서, 얼른 결정하기 어렵다.[35]

최현배(1937/1984)에서는 ‘품사 전성’이 밑(本)과 끝(末), 즉 기준 품사와 전성된 품사를 설정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품사 전성’은 개념상 이동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품사를 기준 품사와 전성된 품사로 분류한다. 그러나 정작 어떠한 품사가 기준이 되고, 어떠한 품사가 전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내지 못한다. 이처럼 ‘품사 전성’은 기준 품사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사 전성’에서는 [+방향성]의 성질을 고수한다. 그 까닭은 ‘품사 전성’이 단지 품사론에 한한 논의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최현배(1937/1984)에서 논의된 ‘품사 전성’, 즉 ‘씨의 몸바꿈’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논의이다.

(18) ㄱ.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語幹)가, 다른 아무것을 더하지 아니하고, 그 본형(本形) 그대로, 다른 씨줄기 또는 씨로 몸바꾸는(轉成하는) 것이니 : 이는 곧 쓰힘(用法)이 달라짐에 말미암음이다.

ㄴ.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語幹)에 씨가지를 더하여서(더러는 규칙적으로, 더러는 불규칙적으로) 다른 씨로 몸바꾸는 것이니 : 이는 곧 그 꼴(形式)이 달라짐에 말미암음이다.

ㄷ.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語幹)가, 다른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 하고 어울려서, 그 본대 어우른 씨들과는 다른 씨로 몸바꾸는 것이니: 이는 대개 그 뜻(意義)의 달라짐에 말미암음이다.[36]

위에 제시된 예문 중 (18ㄱ)은 오늘날 흔히 ‘품사 전성’으로서 정의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현배(1937/1984)에서 논의된 ‘품사 전성’은 (18ㄴ), (18ㄷ)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18ㄴ)은 씨가지를 더하여서 몸을 바꾸는 것, 즉 파생을 뜻하며, (18ㄷ)은 다른 씨 또는 씨줄기와 어울려 몸을 바꾸는 것, 즉 합성을 뜻한

35) 최현배(1984: 721)에서 참고.
36) 최현배(1984: 720)에서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다시 말해 ‘품사 전성’은 파생과 합성에 의한 품사의 이동 즉, 조어론의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인 것이다. 파생과 합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방향성]의 성질을 전제로 하는 단어 형성의 방법론이다. 나아가 적용 전과 후의 양상이 뚜렷하게 비교되기에 기준이 되는 품사를 설정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품사 전성’은 오히려 단어 형성에 초점을 둔 논의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최현배(1937/1984)에서 정의된 ‘씨의 몸바꿈’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품사가 전환되는 모든 경우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에 (18ㄱ)과 같이 본형 그대로 품사를 바꾸는 경우 또한 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방향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사례마저 포함되어버린 것이다.[37)]

이처럼 ‘품사 전성’은 기본적으로 단어 형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논의이다. 그러나 이후 ‘품사 통용’과 대립되며 (18ㄱ)에 한한 개념으로 굳어짐에 따라 [+방향성]만으로는 모든 사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론적 한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준 품사의 설정에 대한 문제이다. 나아가 ‘품사 전성’은 ‘품사 통용’에서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방향성]의 경우를 배제한 논의이다. 즉 ‘품사 통용’은 ‘방향성’에 대한 이론적 보충의 여지가 있는 반면, ‘품사 전성’에서는 불가하기에 그 한계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3) 영 파생

‘영 파생’은 영 형태(∅)의 접사, 즉 ‘영 접사’를 설정하는 부분과 이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이론적인 한계를 갖는다. ‘영 파생’의 경우 해당 현상에 대해 품사론적 관점을 취하는 앞선 두 견해와는 달리 조어론적 관점에서 이를 ‘한 단어가 영

37) ‘씨’는 곧 품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씨의 몸바꿈’은 품사의 전환 혹은 전성으로 해석된다. 즉 최현배(1984: 719)에서 정의하는 ‘씨의 몸바꿈’은 품사가 바뀌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 정리한 개념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본래의 ‘품사 전성’은 ‘본형 그대로 몸을 바꾸는 경우’만이 아닌 ‘다른 씨가지를 더하여서 몸을 바꾸는 경우’와 ‘다른 씨 혹은 씨줄기와 어울려 몸을 바꾸는 경우’를 함께 다룬다. 그리고 이를 통틀어 ‘씨의 몸바꿈’이라 정의함에 따라 세 가지 경우 모두 품사가 이동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전제는 ‘씨가지를 더하는 경우’(파생)나 ‘다른 씨와 어울리는 경우’(합성)에 한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본형 그대로 씨를 바꾸는 경우’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준이 되는 품사를 설정함에 있어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후 ‘품사 전성’은 ‘품사 통용’과 대립되며 후자의 경우에 한한 개념으로 굳어지어 이러한 한계가 더욱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접사의 결합으로 인해 다른 형태로 파생되는 현상'이라 정의한다. 다시 말해 해당 현상은 한 단어 내의 품사 공유나 이동이 아닌 서로 다른 단어 간의 품사 차라는 것이다. 이때 각 품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동일한 형태로 보이는 까닭은 파생 접사가 영 형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 접사'는 말 그대로 무형의 접사이기에 그 설정이 결코 합리적일 수 없다. 예컨대 파생 접사의 경우도 접두사와 접미사로 구분됨은 물론 어떠한 품사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혹은 어떠한 품사에 파생되느냐에 따라 종류와 형태가 제각각이다. 그러나 '영 접사'는 기본적으로 무형의 접사이기에 이러한 차이를 분간할 수 없다. 설령 이러한 종류와 규칙을 모두 상정한 '영 접사'를 설정하여도, 사실상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영 접사'라는 것은 파생 접사의 특성상 결코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영 접사'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형의 접사라는 점에서 존재에 대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는 모순되게도 무형의 접사이기에 어떠한 설정이라도 가능한 것이 된다. 물론 이러한 설정은 여러 문법적인 불합리성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기에 결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영 접사'를 설정한다면 결국 이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또 다른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의 한계는 바로 '영 접사'를 어떠한 단어에 파생시키느냐, 즉 기준이 되는 단어 설정의 한계이다. '영 파생' 역시 파생의 한 부류라고 볼 때, 파생 전과 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떠한 단어가 기준이 되고, 어떠한 단어가 파생된 것인지를 형태론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 파생'은 '영 접사'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단어를 설정할 수 없음에 이론적인 한계가 드러난다. 이익섭・채완(1999)에서는 이처럼 파생 관계를 증명해 내기 어려움에 따라 '영 파생'으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9) 잘못, 오늘, 서로

(19)의 '잘못, 오늘, 서로' 등은 명사와 부사의 품사를 겸하는 사례이다. '영 파생'의 경우 이를 각 품사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단어의 존재로 판단한다. 그런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경우 겉으로는 어떠한 품사의 단어가 파생된 것인지를 분간해 낼 수 없다.[38] 즉 이를 형태론적으로 분석할 때 [부사+∅→명사]와 [명사+∅→부사] 중 무엇에 해당하는 지를 판별해 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기준이 되는 단어를 정할 수 없다면 '영 접사'의 적용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물론 드물게 '영 접사'의 설정과 적용에 있어 설득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

(20) 띠/띠다, 신/신다, 품/품다

(20)의 경우 현대 국어의 일반적인 파생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명사가 동사로 혹은 동사가 명사로 파생된 형태라 판단된다.[39] 일반적으로 명사가 동사로 파생될 때는 [명사+동사 파생 접미사+-다(어미)]의 관계가 형성된다. 물론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될 때도 [동사 어간+명사 파생 접미사]의 관계가 형성됨은 마찬가지이다.[40] 그런데 위의 경우 명사와 '-다' 사이 혹은 동사 어간 뒤에 파생 접미사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20)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생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영 접사'가 [명사+∅+-다→동사 or 동사 어간+∅→명사]와 같이 적용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사례는 명사와 동사의 관계에서만 확인되는 것이기에, '영 접사'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보다 '영 파생'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

이처럼 '영 파생'은 명사와 동사의 일부 파생 사례를 제외하고는 '영 접사'의 설

38) 이익섭・채완(1999: 97)에서 참고.

39)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두 단어가 완전히 동일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잘못, 오늘, 서로' 등의 단어들은 부사와 명사가 각각 동일한 형태로 제시되기에 파생 관계의 설정에 무리가 있다. 하지만 '띠/띠다', '신/신다', '품/품다' 등과 같은 경우 명사와 동사 어간만 동일한 형태일 뿐, 명사와 동사 자체가 동일한 형태는 아니다. 즉 이 경우 명사에서 동사로 파생되거나,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될 때 어떠한 이유에서 접사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40) 구본관 외(2015: 141-153)에서는 현대 국어의 명사 형성 파생과 동사 형성 파생에 대한 규칙을 각각 [기본 품사(혹은 기본 품사의 어간)+명사 파생 접미사], [기본 품사+동사 파생 접미사+-다(어미)]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각 접미사 별로 파생되는 조건과 역할은 다르나 기본적으로 위의 구조에 해당되는 관계가 나타남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 제시된 '띠/띠다', '신/신다', '품/품다' 등의 구조는 명사 형성 파생의 관계 혹은 동사 형성 파생의 관계에서 파생 접미사만 결여된 형태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접미사가 결여된 것으로 보임에도 파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 접사'에 의한 파생, 즉 '영 파생' 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명사와 동사 어간의 형태가 동일하여 한 단어에 둘 이상이 품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 한해서는 '영 파생'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정과 이에 대한 적용에 있어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영 파생'의 이론적 한계는 품사론적 문제를 조어론적으로 해석하려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품사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일차적으로 품사론적인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몇 가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품사 통용' 혹은 '품사 전성' 등의 논의를 통해 해당 현상을 정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에 반해 '영 파생'은 품사론적인 문제를 굳이 조어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함에 따라 여러 문법적인 불합리성을 전제하게 된다. 즉 '영 파생'의 논의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각오하고서야 해당 현상을 정의해 낼 수 있음에 앞선 두 견해들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앞서 견지한 바와 같이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 그리고 '영 파생'은 이론적으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품사 통용'은 그 원인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아 하위 유형의 범주화에 있어 기준이 부재하고, '방향성'이 배제됨에 따라 이론적인 공백의 한계를 보인다. 또한 '품사 전성'은 기준 품사를 설정할 근거가 부재하기에 '방향성'을 증명해 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며, '영 파생'은 '영 접사'를 설정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한계를 갖는다. 결국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해당 현상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며, '품사 통용'을 '품사 전성'이나 '영 파생'으로 대체할 수도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품사 통용'의 논의는 보다 비판적인 차원에서 고찰이 요구된다.

물론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이러한 이론적 한계에 한해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규범으로서 적용되는 '품사 통용'의 경우 이러한 이론적 한계가 곧 몇 가지 실용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이때의 실용적 문제는 다시금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품사 통용'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근거와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용적 문제

(1) 사전 기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전 기술의 영역에서 ‘품사 통용’이 적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품사 통용’의 임의적 수용이며, 둘째는 ‘품사 통용어’의 ‘동음이의어’ 처리, 그리고 셋째는 사전별 ‘품사 통용어’ 기술의 불일치이다. 우선 ‘품사 통용’의 임의적 수용이란 사전에 ‘품사 통용어’가 기술될 때 ‘품사 통용’에 대한 적용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어떤 단어는 ‘품사 통용’이 인정되는 반면, 어떤 단어에서는 배제되는 문제를 말한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표제어 중 ‘품사 통용’이 임의적으로 수용된 예시이다.

(21) 정말[1]

[Ⅰ] 「명사」

- 거짓 없이 말 그대로임. 또는 그런 말.

• 지금까지 한 말은 정말이다.

[Ⅱ] 「부사」

- 거짓이 없이 말 그대로. = 정말로.

• 너를 정말 사랑해.

[Ⅲ] 「감탄사」

- 어떤 일을 심각하게 여기거나 동의할 때 쓰는 말.

• 정말!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까.

(22) 진짜

[Ⅰ] 「명사」

- 본뜨거나 거짓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닌 참된 것.

• 이 위조지폐는 진짜 같다.

[Ⅱ] 「부사」

-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참으로.

• 영화가 진짜 지루하다.

(21)의 ‘정말[1]’과 (22)의 ‘진짜’는 모두 ‘거짓이 아닌 참된’이라는 뜻으로 동일한 사전적 정의를 지닌다. 사전적 정의가 동일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임을 뜻한다. 예컨대 (21)에서 제시된 명사 혹은 부사 예문의 ‘정말’을 ‘진짜’로 대체하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즉 ‘정말’과 ‘진짜’는 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부류의 단어인 것이다. 그런데 '정말[1]'은 명사, 부사, 감탄사 등 총 세 가지의 품사로 기술되는 반면, '진짜'는 명사와 부사의 품사로만 기술된다. 이렇듯 사전 기술에서는 '진짜'를 감탄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 '진짜'가 감탄사로 기능하는가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정말'과 '진짜'의 감탄사적 기능에 대한 비교의 예시이다.

(23) ㄱ. 정말!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까.
ㄴ. 진짜!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까.

(23)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이 감탄사로 쓰인 문장에 '진짜'를 대신 넣어도 문맥상 전혀 어색하지 않다. 즉 '진짜'는 명사와 부사뿐만 아니라 감탄사로도 통용되는 단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사전에서 감탄사의 '품사 통용어'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같은 부류의 단어 간에도 '품사 통용'이 임의적으로 수용되어 어느 단어는 '품사 통용어'로 인정받는 반면, 어느 단어에서는 배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품사 통용'의 임의적 수용은 단어들의 품사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함은 물론, 같은 부류의 단어들을 범주화할 때도 오류를 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한편, 사전 기술에서는 '품사 통용어'가 '동음이의어'로 처리되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품사 통용어'는 기본적으로 '한 단어'를 전제로 한다. 즉 통용되는 두 품사는 '한 단어' 내에 포함되는 것이다. 반면, '동음이의어'는 애초에 서로 다른 단어 간의 관계를 전제한다. 따라서 '품사 통용어'와 '동음이의어'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간혹 사전에서는 이러한 두 개념이 올바르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품사 통용어'가 '동음이의어'로 처리되는 표제어의 예시이다.

(24) 아니[1]
「부사」
- (용언 앞에 쓰여)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아니 먹다. • 아니 슬프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5) 아니²

「감탄사」

-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 “잠 자니?” “아니, 안 자.”

(24)와 (25)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아니’는 사전에서 ‘동음이의어’로 기술된다. 그런데 각각의 사전적 정의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아니’를 ‘동음이의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의 소지가 있다. 예컨대 ‘아니¹’는 부사로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며, ‘아니²’는 감탄사로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이라 정의된다. 즉 두 단어는 모두 ‘부정 혹은 반대’라는 공통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단어를 완전히 다른 단어라 보기는 어렵다. ‘동음이의어’는 기본적으로 두 단어 사이에 의미의 관련성이 전혀 없어야함을 조건으로 한다.[41] 그런데 ‘아니¹’와 ‘아니²’의 경우 이러한 의미의 관련성이 다소 뚜렷하게 나타나기에, ‘동음이의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감탄사로 쓰인 ‘아니²’가 부사로 쓰인 ‘아니¹’에서 기원된 ‘품사 통용’의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아니’는 기본적으로 부사이며, 이후 구어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감탄사로 통용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는 사전에서 ‘동음이의어’로 기술되며, ‘품사 통용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품사 통용어’를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것은 사전 기술에서 ‘품사 통용’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못함에 문제될 뿐만 아니라, ‘동음이의어’의 정의에 있어서 모순을 초래하는 사례이기에, 의미론적인 영역으로 그 문제가 확장된다.

한편, 사전별로 ‘품사 통용어’의 기술에 차이를 보이는 것 역시 관련 문제로 제기 될 수 있다. ‘품사 통용어’는 모든 사전에서 일관적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어떤 사전에서 ‘품사 통용어’로 처리하는 단어를 다른 사전에서는 ‘동음이의어’로 보거나, ‘품사 통용어’ 내에서도 통용되는 품사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게 기술된다. 즉 사전별로 ‘품사 통용어’의 기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199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연세 한국어사전』(1998)에서 ‘품사 통용어’의 기술에 차이를 보이는 표제어의 예시이다.

41) 윤평현(2008: 177-187)에서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4> 사전별 '품사 통용어'의 기술 양상[42)]

사전 / 표제어	『표준국어대사전』 (199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	『연세 한국어사전』 (1998)
전(前) (명사-관형사)	전[8](명사, 관형사)	전[3](명사, 관형사)	전[2](명사) 전[9](관형사)
정말 (명사-부사 -감탄사)	정말 (명사, 부사, 감탄사)	정말 (명사, 부사, 감탄사)	정말[1](명사) 정말[2](부사) 정말[3](감탄사)
만큼 (명사-조사)	만큼(명사, 조사)	만큼[1](명사) 만큼[2](조사)	만큼[1](명사) 만큼[2](조사)
이 (대명사-관형사)	이[5](대명사, 관형사)	이[1](관형사, 대명사)	이[7](대명사) 이[9](관형사)
칠(七) (수사-관형사)	칠[1](수사, 관형사)	칠[2](수사)	칠[2](수사)
어쩌면 (부사-감탄사)	어쩌면(부사, 감탄사)	어쩌면[1](부사, 감탄사)	어쩌면[1](부사) 어쩌면[2](감탄사)
밝다 (동사-형용사)	밝다(동사, 형용사)	밝다[2](동사, 형용사)	밝다[1](동사) 밝다[2](형용사)
비교적 (부사-관형사 -명사)	비교적 (부사, 관형사, 명사)	비교적 (부사, 관형사, 명사)	비교적(부사)

<표 4>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전별로 '품사 통용어'의 기술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품사 통용어'의 기술 차이는 '품사 통용'이 갖는 이론적 한계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앞서 '품사 통용'에 대한 이론적 한계를 논하며 지적한 바와 같이 '품사 통용'은 기준이 부재하는 논의이다. 이러한 이론적 한계는 곧 사전별로 '품사 통용어'를 기술함에 있어 일관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에, 사전별로 '품사 통용어'가 제각각 다르게 기술되어 버린다.

사전 기술에서의 '품사 통용'과 관련한 문제들은 모두 이러한 '기준의 부재'에서

42) <표 4>는 한희정(2013: 29-31)에서 사전별 품사 기술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한 표제어 중 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6개의 단어를 추려 위의 세 가지 사전에 한해 비교·분석한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비롯된다. 이때의 기준이라는 것은 논리적 체계를 뜻한다. 만약 '품사 통용'에 대한 논의가 처음부터 논리적인 체계 하에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이었다면, 사전에서 이를 기준하여 단어를 기술함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품사 통용'은 다소 모호하게 해석되는 논의이기에 사전 기술에 있어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전 기술에서의 '품사 통용'과 관련한 문제들은 모두 '품사 통용'의 이론적 한계에 기인한다.

(2) 학교 문법

'품사 통용'이 갖는 이론적 한계는 학교 문법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이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체언 수식 부사'가 파생되는 문제이며, 둘째는 이러한 문법적 오류를 수용함에 따라 '품사 통용'과 공존하게 되는 교육적 모순에 관한 문제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품사 통용'을 수용한다. 2015년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중학교 국어 1』(2018)과『고등학교 언어와 매체』(2019)를 통해 품사 교육이 이루어지며, '품사 통용' 역시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품사 통용'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 단어에 여러 품사가 쓰일 수 있음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기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은 2015년도 개정『중학교 국어 1』(2018)과『고등학교 언어와 매체』(2019)에서 나타나는 '품사 통용'의 교육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교과서별 '품사 통용'의 교육 양상

교과서	출판사	'품사 통용'의 예시
2015년도 개정『중학교 국어 1』(2018)	비상교육	만큼(명사/조사), 아니(부사/감탄사)
	천재교육(노)	모두(명사/부사), 그(대명사/관형사)
	천재교육(박)	그(대명사/관형사), 같이(조사/부사)
	지학사	일곱(수사/관형사), 같이(조사/부사)
	창비	일곱(수사/관형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15년도 개정 『언어와 매체』 (2019)	천재교육	오늘(명사/부사), 만큼(조사/명사) 밝다(형용사/동사), 다섯(수사/관형사) 다섯(수사/관형사), 만세(명사/감탄사) 아니(부사/감탄사), 정말(명사/부사/감탄사)
	미래엔	이(대명사/관형사), 다섯(수사/관형사) 오늘(명사/부사)
	비상교육	이(대명사/관형사), 다섯(수사/관형사) 만큼(명사/조사)
	지학사	만큼(명사/조사), 열(수사/관형사) 밝다(형용사/동사), 지적(명사/관형사)
	창비	모두(명사/부사), 만큼(명사/조사)

<표 5>와 같이 학교 문법에서는 '품사 통용'을 수용하여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일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이때의 '품사 통용'에 대한 교육은 주로 학습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며, 사전을 찾아보거나 문장을 만들어 보는 식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품사 통용'을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문법에서는 품사 교육의 부분에 '품사 통용'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는 품사의 교육에 있어 이처럼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과는 반대로 한 단어의 품사를 한 가지로 한정짓는 품사 처리 방식 또한 함께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의 품사 처리 방식이 바로 '체언 수식 부사'인 것이다. '체언 수식 부사'란 예외적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부사는 기본적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예외적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일컫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체언 수식 부사'의 예시이다.

(26) ㄱ. 선을 바로 긋다.
ㄴ. 그건 바로 너다.

(26ㄱ)의 '바로'는 기본적으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그러나 (26ㄴ)에서는 '바로'가 체언인 '너'를 수식한다. 국어 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언을 수식하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것을 부사라 지칭하며,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관형사로 분류한다. 그런데 '바로'와 같은 단어는 용언을 수식하기에 부사로 분류됨에도 간혹 체언의 수식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이때의 '바로'가 학교 문법 교육에서 말하는 '체언 수식 부사'이다. 다음은 앞서 '품사 통용'에 대한 교육 양상을 정리한 교과서 중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한해 그 교육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교과서별 '체언 수식 부사'의 교육 양상

교과서	출판사	'체언 수식 부사'의 예시
2015년도 개정 『중학교 국어 1』 (2018)	비상교육	바로, 특히
	지학사	바로
2015년도 개정 『언어와 매체』 (2019)	천재교육	바로
	비상교육	다만
	지학사	바로

<표 6>과 같이 일부 교과서에서는 '품사 통용'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체언 수식 부사'는 그 개념이 직접적으로 교육되기보다 주로 교사용 지도서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부사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간혹 체언에 대한 수식의 기능으로도 사용된다는 정보가 참고 내용 정도로 기재된다. 이러한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교육이 문제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체언 수식 부사' 자체가 '품사 통용'이 갖는 이론적 모호함으로 인해 파생된 문법적 오류라는 것, 둘째는 서로 상반되는 품사 처리 방식이 현 학교 문법에 함께 포함되어 공존하게 되는 교육적 모순에 관한 것이다.

우선 '체언 수식 부사'의 경우 그 자체로도 문제가 제기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관형사와 부사는 기능에 의한 분류에 따라 수식언으로 같이 묶인다. 그리고 의미의 기준 하에 수식언 중에서도 체언을 꾸며 그 의미를 한정하는 단어들은 관형사로, 용언을 꾸며 그 의미를 한정하는 단어들은 부사로 분류된다. 이때 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형사와 부사는 수식의 기능이 공통된다는 점에서 같은 기능 범주에 속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그 역할과 의미가 구분되는 것이기에 서로 다른 품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체언 수식 부사'는 바로 이러한 품사 분류의 의의를 무시함으로써 문제가 된다. 가령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가 예외적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관형사와 부사를 굳이 분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경우 수식언 모두를 부사라 칭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유형을 나누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사 분류의 의의는 이러한 포괄적 제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품사를 분류하는 까닭은 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즉 단어를 가능한 세부적으로 분류해 내는 것이 품사 분류의 의의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언 수식 부사'는 단어의 형태에 의존해 품사를 포괄적으로 판단한 결과이기에, 이러한 품사 분류의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는 그저 관형사일 뿐 굳이 이를 '체언 수식 부사'로 정의해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6)의 '바로'는 '체언 수식 부사'가 아닌 부사와 관형사의 '품사 통용어'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사 통용'은 기준이 부재한 논의이기에 이와 같은 품사의 처리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26)의 '바로'와 같은 단어들은 '품사 통용'의 사례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으며,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모호함이 곧 '체언 수식 부사'라는 문법적 오류를 파생시킨 것이다.

한편, 앞서 '품사 통용'이 학교 문법에서 수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체언 수식 부사'가 학교 문법에 포함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모순된다. 학교 문법에서 교육되는 '체언 수식 부사'에 의하면 주로 부사로 사용되는 단어일 경우 문장에서 용언을 수식하여도 이를 관형사가 아닌 부사의 예외적 기능이라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품사 처리는 한 단어를 한 가지의 품사로 한정짓는 방식이기에, '품사 통용'과는 상반되는 개념인 것이다. 예컨대 (26)의 '바로'는 '체언 수식 부사'의 입장에서 부사로 분류되지만, '품사 통용'의 입장에서는 이를 관형사로 본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교 문법에서 이 두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를 부사로도 교육해야 하며, 관형사로도 교육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홍범・전후민(2013)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품사 통용'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체언 수식 부사'를 교육하는 것은 '품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통용’의 교육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처럼 학교 문법 교육에서 ‘품사 통용’과 ‘체언 수식 부사’가 공존하는 것은 문법 교육에 혼란을 초래한다. 이러한 모순의 발생은 결과적으로 ‘체언 수식 부사’로 정의되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을 ‘품사 통용’에 기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품사 통용어’에 대한 판단에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체언 수식 부사’라고 잘못 정의해 버린 것이다. 이처럼 학교 문법 교육에서는 ‘품사 통용’을 수용하고 있으나 그 자체가 이론적으로 모호한 논의이기에, 이에 반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도 그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학교 문법에서 ‘품사 통용’과 관련한 문제는 해당 논의가 갖는 이론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론적으로 모호한 논의라는 점에서 이를 교육함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품사 통용’을 통해 해당 현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었다면 ‘체언 수식 부사’라는 문법적 오류가 파생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문법적 오류가 ‘품사 통용’과 공존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품사 통용’은 그 한계가 분명한 논의이기에,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학교 교육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학교 문법에서의 ‘품사 통용’과 관련한 문제는 ‘품사 통용’의 이론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통해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은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앞서 2장에서는 ‘품사 통용’의 이론적 한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을 견지하였다. 이렇듯 기존의 논의가 갖는 한계는 곧 해당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근거를 제시하며, 나아가 ‘품사 통용’의 논의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기존의 한계가 보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품사 통용’의 한계와 문제들을 지적하며, 해당 현상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국어 문법에서 ‘품사 통용’을 몰아내자는 논의가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 자체를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전 장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어란 일정한 기준 하에 완벽하게 범주화시킬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상 ‘품사 통용’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품사 통용’의 한계는 현상을 명확하게 정의해 내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일 뿐, 현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품사 통용’은 하나의 문법 현상으로서 그 자체가 부정되기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품사 통용’은 어떻게 고찰되어야 하는가. ‘품사 통용’에는 ‘방향성의 부재’와 ‘기준의 부재’라는 두 가지 이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품사 통용’은 그 논의가 다소 모호하게 해석된다. 결국 기존의 논의는 위의 두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차원에서 재기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방향성의 부재’에 대해서는 기존의 ‘품사 통용’에 ‘품사 전성’을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재기술하는 ‘품사 통용’은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서 정의된다. 또한 ‘기준의 부재’에 대해서는 ‘품사 통용’에 대한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 냄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품사 통용’은 그 하위 유형을 분류할 때에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고,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구체적인 유형의 제시가 가능해 진다. 이렇듯 ‘품사 통용’의 한계는 기존의 견해들을 통합하고 세부적인 원인과 분류에 대한 이론적 보충으로써 보완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품사 통용’은 보다 논리적인 체계 안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장에서는 기존의 ‘품사 통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나아가 그 내용을 크게 개념, 원인, 분류 등으로 정리하고 재기술함으로써 ‘품사 통용’에 대한 보다 논리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1. 품사 통용의 개념

기존의 ‘품사 통용’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공유되는 현상’이라 정의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현상의 정의는 ‘방향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한계를 갖는다. 예컨대 품사의 공유라는 것은 공유되는 둘 이상의 품사를 서로 대등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품사 전성’에서 해당 현상을 품사의 이동이라 판단함에 따라 [+방향성]의 성질을 전제했던 것과는 달리, ‘방향성’이 고려되지 않는, 즉 [-방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간혹 해당 사례 중에서는 [+방향성]의 성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품사 통용’의 개념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즉 기존의 ‘품사 통용’은 그 개념에서부터 이미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논의인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의 부재’는 ‘품사 전성’과의 이론적 통합으로써 보완이 가능하다. ‘품사 통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크게 [-방향성]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와 [+방향성]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로 분류된다. 기존의 논의 중 ‘품사 통용’은 전자에 한한 개념이며, ‘품사 전성’은 후자에 한한 개념이다. 그렇기에 이 둘을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든 사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론적 통합에는 그에 합당한 근거가 요구된다.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의 통합은 두 논의 모두 품사가 중복되는 현상 자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현상에 대해 품사의 공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혹은 품사의 이동이라는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 궁극적으로 두 논의는 모두 한 단어에 여러 품사가 중복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품사 통용'을 기준하여 통합할 것인가, 혹은 '품사 전성'을 기준하여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두될 만하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품사 통용'을 기준하여 통합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지닌다. 그 까닭은 '품사 통용'이 '방향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즉 [±방향성]으로 설정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반면, '품사 전성'은 애초에 해당 현상을 [+방향성]의 기준에서만 판단함에 따라 [-방향성]이 보충될 여지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품사 통용'에 '품사 전성'을 통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향성의 부재'로 설명되는 '품사 통용'의 이론적 한계는 '품사 전성'이 이에 통합됨으로써 해소된다.[43] 이러한 이론적 통합은 결국 '품사 통용'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의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의 정의는 품사의 공유와 품사의 이동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의 개념을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이라 다시 정의한다.[44]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된다는 것은 그 포함 과정에 따라 품사의 공유로 분류될 수도, 품사의 이동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즉 이러한 개념의 정의를 통해 기존의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을 모두 포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세부 유형의 분류는 필요하며, 나아가 기존의 분류 방법에 대한 재설정도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개념의 정의에는 몇 가지 부분에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가령 그 범주를 '한 단어'라는 용어로서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해당 개념의 명칭을 '품사 통용'으로 지정하는

43) 이러한 통합의 가능성은 남수경(2011: 121-123)에서 지적한 '품사 통용'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남수경(2011: 121-123)에서는 '방향성'이라는 성질을 언급함에 따라 '품사 통용'은 [-방향성]을 전제하고 있으나, 몇 가지 사례들에 한해서는 [+방향성]을 전제로 하는, 즉 '품사 전성'으로 해석되기에 보다 합당한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품사 통용'은 이론적으로 '품사 전성'과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품사 통용'이 [±방향성]으로 재설정됨에 따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된다. 그리고 이때의 가능성이 바로 두 논의의 이론적 통합인 것이다.

44) 기존의 '품사 통용'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공유되는 현상'이라 정의되며, '품사 전성'은 '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품사로 이동하는 현상'이라 정의되는 것이다. 이러한 품사의 공유와 이동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 개념을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이라 정의한 후, 이에 대한 공유와 이동 즉, '방향성'에 따른 하위 유형을 세분화함에 따라 기존의 두 개념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문제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남수경(2011)에서는 '품사 통용'에서 전제하는 '한 단어'를 사전에 기술되는 '하나의 표제어'라고 정의한다. 나아가 사전에서 서로 다른 표제어로 기술되는 단어마저 '품사 통용'의 예로 포함하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한 단어'라는 용어 설정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결국 '품사 통용'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한 단어'라는 용어의 사용에는 그 문제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의 개념을 다시 정의할 때에 '한 단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수한다. 그 까닭은 이때의 '한 단어'란 '하나의 표제어'로 정의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45]

'한 단어'가 '하나의 표제어'로 정의될 수 없는 이유는 '품사 통용'이 사전 기술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품사 통용'이 사전 기술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문법 현상이라면,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이다. 이 경우 '품사 통용'에서 전제하는 '한 단어'란 곧 '하나의 표제어'이므로, 이러한 대상의 범주를 벗어난 유형의 설정에는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품사 통용'은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과 이에 따른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 나아가 문법적인 변화의 과정에 의해 파생된 결과이다. 즉 사전이라는 매체는 이러한 '품사 통용'을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뿐, 결코 어떠한 문법 현상에 대해 능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 단어'를 '하나의 표제어'로 판단하는 것은 '품사 통용'을 사전 기술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생긴 오해라고 본다. 따라서 '품사 통용'에서 전제하는 '한 단어'는 '하나의 표제어'로 한정될 수 없는 것이며, 이때의 '한 단어'는 그 동안 단어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었듯 보

45) 남수경(2011: 109-114)에서는 '한 단어'를 '하나의 표제어'로 정의함에 따라 '품사 통용'은 그 범주를 벗어난 논의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품사 통용'에서는 '아니[1]'와 '아니[2]'를 '한 단어'로 보고, 이를 '품사 통용'의 사례로 제시한다. 그러나 사전에서 '아니[1]'와 '아니[2]'는 분명 서로 다른 표제어로서 기술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품사 통용'은 그 범주를 '한 단어'로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사전에서 다른 표제어로 기술되는 단어마저 해당 사례에 포함시킴에 따라 광범위한 범주의 설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전제가 '품사 통용'이 사전 기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기에 문제된다. 사전은 어휘를 모아 순서대로 배열함으로써 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해당 어휘에 대한 문법 현상을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반영해야 되는 수동적인 역할을 가질 뿐, 그 안에서 어떠한 문법 현상이 형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아니'의 경우 서로 다른 표제어임에도 이를 '품사 통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닌, 애초에 '품사 통용어'인 단어를 사전에서 서로 다른 표제어로 기술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품사 통용'은 사전 기술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기에, 여기서 전제하는 '한 단어'란 '하나의 표제어'로 한정해서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근본적인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46]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의 정의에 있어 '한 단어'라는 용어를 통해 그 범주를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나아가 '품사 통용'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품사 통용'과 같은 경우 학자들에 따라서는 '통용'보다는 '겸용'의 용어를 통해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해당 현상의 명칭은 계속해서 논의되는 주제이며, '품사 통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차원에서도 분명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품사 통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그 명칭을 고수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품사 전성'과의 통합을 통해 해당 개념을 재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용어의 재설정에 대한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따르는 이유는 '품사 통용'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용'이란 '일반적으로 두루 씀' 혹은 '서로 넘나들어 두루 씀'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갖는 용어이다. 반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겸용'은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두루 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후자의 논의가 대두되는 까닭은 '품사 통용'을 기본적으로 기능에 따른 범주의 중복 현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품사 겸용'이라고 한다면, 품사가 마치 목적을 갖는 주체처럼 묘사되기에 다소 모호한 지점이 있다. 예컨대 기존의 '품사 통용'은 한 단어가 여러 문법적 기능, 즉 여러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둘 이상의 품사가 공유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때 두루 쓰이는 것은 품사가 아닌 단어이다. 따라서 이를 '품사 겸용'이라 지칭하는 것은 그 주체가 단어가 아닌 품사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결

---

46) 최형용(2016: 67)에서는 단어에 여러 개념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ㄱ.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음 결합체
ㄴ. 최소의 자립 형식
ㄷ. 휴지가 개입할 수 없고 내부가 분리되지 않는 형식
'품사 통용'에서 전제하는 '한 단어' 역시 당연하게도 이러한 개념의 용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하나의 표제어'를 '한 단어'라 판단하는 것은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한 단어'가 사전에서 항상 '하나의 표제어'로 기술되는 것은 아니기에, '한 단어'를 '하나의 표제어'라 정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은 사전 기술에 '품사 통용'이 임의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기존의 '품사 통용'이 갖는 이론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 단어'를 '하나의 표제어'라 정의하는 것은 사전 기술에 '품사 통용'이 완벽하게 적용된 후에 성립될 수 있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적으로 이러한 경우 품사가 일반적으로 한 단어에 두루 쓰이거나, 품사가 서로 넘나들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품사 통용'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여기서 정의하는 개념 역시 이러한 명칭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만약 이에 대한 명칭을 바꿔 사용한다면 '품사 중복' 정도가 검토될 수 있겠으나, '품사 통용'과 큰 의미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품사 통용'은 그 자체에 오류가 있는 명칭이 아니기에, 이를 굳이 다른 명칭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이라는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해당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자 한다.

이렇듯 '품사 통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에 있어 해당 개념은 '품사 전성'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다시 정의된다. 물론 이러한 개념의 정의에는 기존의 범주 설정과 명칭의 사용이 그대로 반영된다. 즉 '품사 통용'의 범주와 명칭은 유지하되, 그 개념을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으로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재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품사 통용'의 개념은 기존의 견해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방향성의 부재'라는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기에 그 의의가 있다.

2. 품사 통용의 원인

기존의 '품사 통용'은 고영근・구본관(2008/2018)에서 제시하는 '임의적인 품사 분류', '통시적 변화의 과정', '의미상의 특성',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등 총 네 가지의 원인을 통해 설명된다. 하지만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상에 대한 원인을 올바르게 규명해 낸 것이 아니다. 우선 '임의적인 품사 분류'의 경우 국어의 품사 분류에는 분명한 기준이 존재함에도, 이에 종속되지 않는 몇 가지 단어들의 사례를 두고 단편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또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품사 통용'의 유형을 다소 무리하게 설정함으로써, 해당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음에도 이를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모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나타난다.

이처럼 기존의 '품사 통용'은 그 원인이 올바르게 규명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현상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음은 곧 해당 사례를 분류할 때에 기준이 부재하는 이론적 한계를 야기하게 된다. 다시 말해 '품사 통용'이라는 현상은 존재하지만, 어떠한 단어가 이에 해당되는지 혹은 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변별할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준의 부재'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본관(2010)에서는 앞서 제시된 '품사 통용'의 원인을 다시 규명하여 보다 포괄적인 원인의 기술에 노력을 보였다. 다음은 구본관(2010)에서 제시하는 '품사 통용'의 원인이다.

(27) ㄱ. '의미'보다 '분포'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했기 때문.
예) 백(수사/관형사), 이지적(명사/관형사), 밝다(동사/형용사)
ㄴ. 낱말의 의미가 품사를 분화한 경우.
예) 아니(부사/감탄사), 평생(명사/부사), 거기(대명사/부사)
ㄷ. 통시적인 변화를 공시적으로 분류했기 때문.
예) 만큼(명사/조사), 보다(조사/부사), 품-(명사/동사), 가물-(명사/동사)[47]

그러나 이러한 원인의 제시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우선 (27ㄱ)의 경우 '품사 분류의 임의성'이라는 단편적인 판단에 비해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원인 중점의 기술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는 모든 통용의 경우가 '의미'보다는 '분포' 혹은 '기능'에 초점을 맞춘 분류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그 반대의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논의가 되어버린다. 예컨대 당장 그 예시로 든 '밝다(동사/형용사)'의 경우 통용되는 두 품사의 '기능'은 동일하다. 즉 '기능'에 따라 분류된 품사가 아닌 것이다. 다만 두 품사는 '의미'의 기준 하에서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통용의 원인은 '기능'에 초점을 맞춘 분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해당 단어가 '의미'의 기준에 종속되지 않는 것

47) 구본관(2010: 193)에서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으로 설명되어야 한다.[48] 그리고 이처럼 각 기준이 중복됨으로써 '품사 통용'이 나타나는 까닭은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품사의 분류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과 상통한다. 따라서 (27ㄱ)은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세부 원인을 '기능'의 관점과 '의미'의 관점에서 모두 기술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7ㄴ) 역시 그 의미[49]를 단일하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전자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포함시켜 설명될 수 있겠다. 다만 (27ㄷ)은 이러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으로는 전부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처럼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용어로 정의한다면,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이라 기술될 수 있겠다. 다만 '문법화'란 보다 광의적인 차원에서 화용론적 변화마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27ㄴ)의 예로 제시된 '아니(부사/감탄사)'와 같은 감탄사의 통용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한 관련 예시로 제시되는 명사와 동사의 통용은 그 근거가 부족하고, 현대국어에서는 이러한 통용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례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원인과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고려하여 '품사 통용'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 내고자 한다. 이에 '품사 통용'의 원인을 다음의 두 가지로 재기술한다.

(28) ㄱ.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 : ①기능 중복 ②의미 중복
ㄴ.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 : ①조사화 ②감탄사화

---

48) 물론 이 경우 '기능'과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본문에서는 이를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기능(function)'과 '의미(meaning)'로 해석함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의 통용 원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구본관(2010: 193)에서 이미 그 원인을 기술할 때에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용어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사 분류의 기준상 동사와 형용사가 구분되는 것은 '기능'이 아닌 '의미'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두 품사의 통용은 '기능'에 초점을 맞춘 품사 분류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 품사 분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를 볼 때, 품사 분류가 불완전함은 그 분류 기준이 단지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은 단어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기능'의 분류가 원인이 되기도, '의미'의 분류가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49) 구본관(2010: 193)에서 제시하는 '품사 통용'의 원인 중 두 번째로 기술된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의미(meaning)'가 아닌 개별 단어의 차별적 '의미(sense)'로 기술된 것임에 주의를 요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선 구본관(2010)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원인 모두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이를 하나로 묶어 기술한다. 다만 구본관(2010)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기능'의 기준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단어의 특성상 '기능'과 '의미'의 기준이 모두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규명한다. 또한 구본관(2010)에서 제시하는 세 번째 원인을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이라 다시 기술하고, 기존의 예로 포함되지 않던 감탄사의 통용을 이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원인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하기로 한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의 원인으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50]과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해당 사례의 분류를 통해 '기준의 부재'로 설명되는 '품사 통용'의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1)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

품사 분류란 곧 단어를 일정한 기준 하에 범주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화의 작업은 단어의 효율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을 '품사 통용'에 대한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품사 분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단어의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품사란 단어를 공통된 성질끼리 모아 놓은 범주를 뜻하며, 이러한 범주화의 작업을 품사 분류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는 그 공통성을 변별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국어의 품사 분류에는 '형태(form)', '기능(function)', '의

50) 이 연구에서 '품사 통용'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과 기존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품사 분류의 임의성'은 분명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품사 분류의 임의성'은 말 그대로 품사 분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논의이다. 이는 결국 품사 분류 자체에 오류가 있으며, 이로 인해 '품사 통용'이 야기된다는 부정적인 원인의 제시이다. 반면,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다. 애초에 단어란 일정한 기준 하에 완벽하게 분류될 수 없는 것이기에, 품사 분류 자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즉 기존의 원인은 품사 분류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품사 분류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단어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품사 분류 자체가 완벽하게 설정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품사 통용'은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미(meaning)' 등 총 세 가지의 기준이 존재한다. 고영근・구본관(2008/2018)에 따르면 이때의 '형태(form)'는 단어의 형태적 특징, 곧 어미에 의한 굴절의 양상을 뜻하며, '기능(function)'은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와 맺는 문법적 관계를 뜻한다. 그리고 '의미(meaning)'는 개별 단어의 차별적인 '의미(sense)'가 아닌 품사 부류 전체가 가지는 의미를 지칭한다.[51]

이처럼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 등 총 세 가지의 기준 하에 각각의 품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핵심 논의인 '품사 통용'은 이러한 기준 하에 품사가 완벽하게 범주화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즉 국어의 품사는 위의 세 가지 기준으로 완전히 분류되지 않으며, 이러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이 곧 '품사 통용'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품사 분류의 한계는 근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다음은 최형용(2016)에서 제시하는 단어의 일반적인 정의이다.

(29) ㄱ.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음 결합체
ㄴ. 최소의 자립 형식
ㄷ. 휴지가 개입할 수 없고 내부가 분리되지 않는 형식[52]

이에 대해 최형용(2016)에서는 단어가 주로 단일한 의미체로 정의되지만, 이러한 기준은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자립 형식과 비분리성이라는 형태적인 기준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마저도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에 단어를 단일하게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여러 속성에 맞게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53] 이처럼 단어를 본질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단어가 매우 오래 전부터 사용된 언어 단위이며, 그동안 이에 대한 개념의 축척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51) 즉 품사 분류 기준에서의 '의미(meaning)'는 그 품사 부류에 대한 개념적 정의인 것이다. 예컨대 동사는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며,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 정의된다. 이때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과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meaning)'이며, 이러한 '의미'가 곧 각각의 품사를 분류해 내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어의 개별적 '의미(sense)'와는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될 필요가 있다.

52) 최형용(2016: 67)에서 참고.

53) 이에 대해 최형용(2003: 29-34)에서는 단어를 각각의 속성에 맞게 '음운론적 단어', '문법적 단어', '어휘적 단어' 등으로 그 개념을 해체해서 정의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렇듯 단어라는 것은 그 개념을 단일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르게 하나의 단어는 여러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이처럼 단어가 단일한 의미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곧 단어란 본질적으로 단일하게 정의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54] 나아가 이러한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상 품사의 분류에 있어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범주 안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단어가 단일하게 정의되지 않는 것은 이를 분류하는 작업에서도 단일한 범주화가 불가능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어는 그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 불완전하게 분류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이 곧 '품사 통용'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55]

이에 따라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차원에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을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은 총 세 가지이며,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에 따른 '품사 통용'은 각 기준별 범주의 넘나듦을 통해 확인된다. 다만 '형태'의 기준에 한해서는 이러한 중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까닭은 '기능'과 '의미'의 기준은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상 분류에 모호함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나, '형태'는 어미에 의한 굴절 양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그 범주가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56]

---

54) 윤평현(2008: 98)에 의하면 단어란 단일한 의미체가 아닌, 작은 의미들이 결합된 의미 조각의 결합체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예시를 통해 증명된다.

ㄱ. 수녀는 석가모니를 모신다.

ㄴ. 수녀 가운데는 남자도 더러 있다.

ㄷ. 저 수녀는 삼 년 전에 결혼했다.

이에 대해 윤평현(2008: 98)에서는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위의 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첫 번째 예문에서의 '수녀'는 '천주교'의 의미가, 두 번째 예문에서의 '수녀'는 '여자'의 의미가, 세 번째 예문에서의 '수녀'는 '결혼하지 않은'의 의미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만약 '수녀'라는 단어가 단일한 의미체라면 이처럼 어긋난 문장이 다양하게 나올 수 없다. 이렇듯 단어란 위의 예문과 같이 몇 개의 의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미 조각의 결합체인 것이다. 나아가 단어가 의미의 결합체인 것은 곧 그 정의에 있어서도 단일하게 해석될 수 없음을 뜻한다.

55) 이러한 논의대로라면 '품사 통용'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이라 정의될 수 있겠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 파생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을 해당 원인으로 제시할 경우, 마치 모든 단어가 '품사 통용'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기에, 다소 추상적인 원인의 제시로 여겨질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사 통용'은 근본적으로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지만, 보다 정확히는 이러한 단어의 특성이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을 야기하고, 나아가 품사 분류가 불완전하게 설정됨에 따라 '품사 통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한다.

56) '형태'의 기준에서 국어는 '불변어'와 '가변어'로만 분류되는데, 당연하게도 국어에서는 불변어이면서 가변어인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태'의 기준은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과는 별개로 품사를 완전히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기에, 이에 한해서는 기준의 중복, 즉 '품사 통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결론적으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에 따른 ‘품사 통용’은 품사 분류 기준 중 ‘기능’과 ‘의미’에 한한 중복을 통해 논의될 수 있겠다. 더 정확히는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상 하나의 형태 안에 여러 ‘기능’과 ‘의미’가 중복되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중복은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을 초래하며, 나아가 이때의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이 곧 ‘품사 통용’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각 기준별 중복 양상의 파악을 통해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에 따른 ‘품사 통용’을 파악하기로 한다.

(1) 기능 중복

‘기능 중복’이란 기능에 의해 분류된 품사 부류가 한 단어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다. 예컨대 기능의 기준 하에 단어는 각각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등으로 분류됨에도, 단어란 그 기능을 단일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기에, 경우에 따라 기능의 범주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능 중복’은 모든 품사 부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어 단어에서는 ‘체언-수식언’의 관계에 한해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체언과 수식언의 기능이 한 단어 내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데 비해, 나머지 부류들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용언의 경우 기능에 의해 분류된 다섯 품사의 부류 중 유일하게 ‘가변어’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즉 용언은 형태적인 측면에서 항상 어미와 결합하기에 다른 품사들과 구분된다. 따라서 ‘한 단어’를 전제로 하는 ‘기능 중복’, 나아가 ‘품사 통용’에서는 용언의 단어가 다른 품사의 단어들과 동일한 형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또한 관계언과 독립언의 경우 그 기능이 몇 단어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므로 ‘기능 중복’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관계언은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기능의 품사 부류이며, 독립언은 다른 단어와 특별한 문법적 관계없이 독립되어 사용되는 품사 부류를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 품사 부류에는 각각 조사와 감탄사만이 해당된다. 즉 관계언과 독립언은 그 기능이 조사와 감탄사에 한해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이 두 품사 부류는 기능의 기준 하에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며, 그 결과 관계언 혹은 독립언에 해당하는 단어에서는 다른 부류의 기능이 공유되어 나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지 않게 된다.

반면, 체언과 수식언의 경우 동일한 형태 안에서 그 기능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중복'의 양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체언과 수식언은 각각 주어로서의 기능과 단어에 대한 수식의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한 단어가 주어로도 쓰이며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수식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히 나타난다. 즉 체언과 수식언의 기능은 한 단어에 공유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기능 중복'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능 중복'은 용언, 관계언, 독립언 등의 품사 부류에서는 그 사례를 찾을 수 없으나, '체언-수식언'의 관계에 한해 뚜렷하게 나타난다. 물론 모든 체언과 수식언의 단어에서 그 기능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체언-수식언'의 관계에서 각 기능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사례는 다시 다섯 가지 경우로 세분화된다. 다음은 '기능 중복'이 나타나는 다섯 가지의 경우와 그 예시이다.

(30) 명사 - 관형사

ㄱ. 사이버 공간은 가공적인 공간이다. <명사>

ㄴ. 소설은 가공적 이야기이다. <관형사>

(31) 명사 - 부사

ㄱ.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 <명사>

ㄴ. 모인 인원을 모두 합하여도 백 명이 안 된다. <부사>

(32) 대명사 - 관형사

ㄱ.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대명사>

ㄴ.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관형사>

(33) 대명사 - 부사

ㄱ. 거기가 어디예요. <대명사>

ㄴ. 나도 거기 갑니다. <부사>

(34) 수사 - 관형사

ㄱ. 오늘은 다섯이나 지각을 했다. <수사>

ㄴ. 사과 다섯 개. <관형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0)의 '가공적'[57]은 명사와 관형사, (31)의 '모두'는 명사와 부사 (32)의 '이'는 대명사와 관형사, (33)의 '거기'는 대명사와 부사, (34)의 '다섯'은 수사와 관형사 등의 품사로 모두 체언과 수식언의 기능이 한 단어 내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우선 (30)의 '가공적'과 (31)의 '모두'는 뒤에 조사를 취하며 문장에서 주어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두 단어는 경우에 따라 조사를 취하지 않고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며, 나아가 수식의 기능까지 확인된다. 이는 두 기능이 한 단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즉 한 단어가 체언과 수식언의 기능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 '기능 중복'의 사례인 것이다.

한편, (32)의 '이'와 (33)의 '거기'는 각각 대명사로 사용되며 동시에 수식언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때 '이', '거기' 등은 사물과 장소에 대한 '지시'의 성질을 갖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가 대명사로 쓰일 때에 사물 혹은 장소를 대신하는 차원에서 지시대명사라 정의되는 것이다. 이에 지시대명사는 체언의 기능으로 사용되나, 이와 별개로 사물 혹은 장소에 대한 지시의 세부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질은 지시대명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수식언에서도 지시관형사와 지시부사 등 전자와 동일한 성질이 품사 부류의 하위 유형에서 나타난다.[58] 따라서 '이'와 '거기' 등은 기본적으로 지시에 대한 성질을 내포함에 따라 지시대명사로서 체언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지시관형사 혹은 지시부사로서 수식언의 기능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34)의 '다섯'이라는 단어에서는 수사와 관형사의 '기능 중복'이 나타난다. 이때 '다섯'은 기본적으로 사물에 대한 수량의 성질을 갖는 단어이다. 따라서 수사 중에서도 양수사로 분류되어 정의된다. 그런데 사물에 대한 수량의 성질은 관형사 중 수관형사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다.[59] 즉 '다섯'과 같은 단어는

---

57) '-적(的)'에 의한 파생어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명사와 관형사 혹은 명사와 부사의 '기능 중복'이 나타난다.

58) '지시'의 성질을 갖는 품사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ㄱ. 지시대명사 :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하는 대명사.
예)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등
ㄴ. 지시관형사 : 여러 대상 가운데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관형사.
예) 이, 그, 저 등
ㄷ. 지시부사 : 방향(혹은 처소)이나 시간, 앞에 나온 내용 등을 가리키는 부사.
예) 이리, 그리, 저리 등
이렇듯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 지시부사 등은 사물 혹은 장소를 지시한다는 의미적 특성이 공통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갖는 단어들은 경우에 따라 위의 품사 부류가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기본적으로 사물에 대한 수량의 성질을 내포하는 단어이기에 수사로 정의되어 체언의 기능을 갖지만, 뒤의 명사에 대한 수량을 한정한다는 차원에서 수관형사로도 분류되어 수식언의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다.[60]

이와 같이 일부 단어에 한해서는 그 기능이 중복되어 두 개의 품사 부류로 설명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즉 기능의 기준에서 단어를 체언과 수식언으로 분류했음에도 범주를 넘나들어 나타나는 단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듯 한 단어에 두 가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단어가 일정한 기준 하에 단일하게 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능 중복'은 곧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품사 통용'의 원인을 제공한다.

(2) 의미 중복

'의미 중복'이란 품사 분류 기준 중 하나인 의미에 따른 범주가 한 단어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다. 기능의 기준 하에 분류된 품사 부류는 다시 의미의 기준으로 세분화되며, 그 결과 국어의 9품사가 모두 분류된다. 즉 국어의 품사 분류는 각 기준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이며, 의미의 기준까지 적용되었을 때 국어 단어는 9품사로 전부 분류되는 것이다. 이러한 품사 분류의 과정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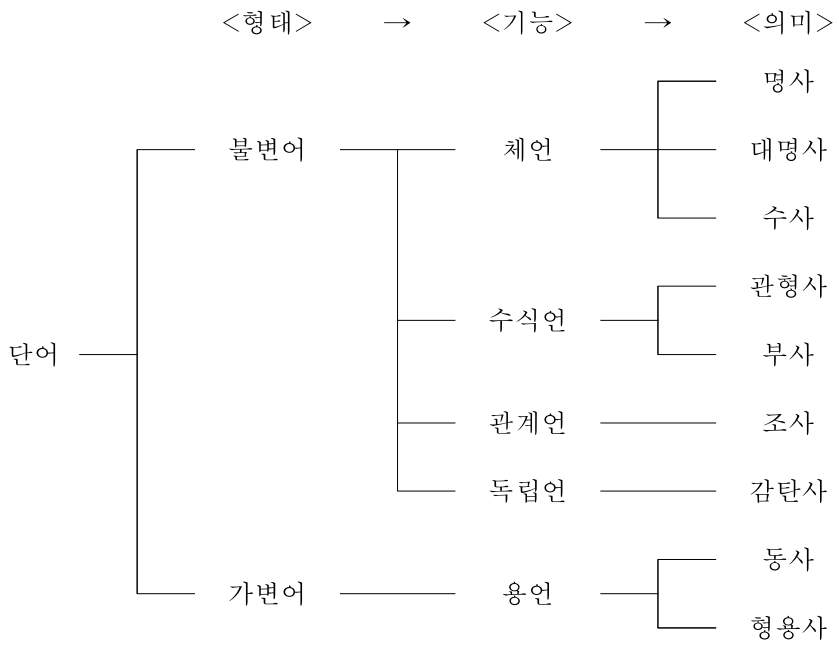
59) '수량'의 성질을 갖는 품사는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ㄱ. 양수사 : 수량(혹은 수)을 나타내는 수사.
예) 하나, 둘, 셋, 여럿, 일, 이, 삼 등
ㄴ. 수관형사 : 대상의 수량을 한정하는 관형사.
예) 한, 두, 세, 네, 다섯, 여섯, 여러, 모든 등
이렇듯 양수사와 수관형사 등은 사물의 수량을 나타낸다는 의미적 특성이 공통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갖는 단어들은 경우에 따라 위의 품사 부류가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60) 물론 수관형사의 '품사 통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고영근・구본관(2018: 59)에 따르면 '다섯'과 같은 수관형사의 경우 수사로 쓰였을 때와 의미상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수사로 다루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체언은 기본적으로 다른 체언을 수식할 수 있기에, 이때의 수관형사는 수사가 수식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수사와 관형사의 통용을 인정함으로써, '다섯'과 같은 단어는 수사와 관형사의 기능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까닭은 수관형사의 '품사 통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같은 맥락에서 '체언-수식언'류의 '품사 통용'은 모두 부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언이 다른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체언과 수식언에 대한 기능의 경계가 모호함에서 비롯된 '기능 중복'의 일환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그 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는 우선적으로 수식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 관형사의 목록이 광범위하게 설정되는 것은 문제이다. 물론 '품사 통용' 자체가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광범위한 범위의 설정은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기술 혹은 학교 문법의 영역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이러한 광범위적 설정에는 여전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음 그림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1> 국어의 품사 분류 과정



이처럼 국어의 품사는 각 기준이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분류된다. 즉 동일한 기능 범주에 포함된 단어들에서도 의미의 기준에 따른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기능에 의해 품사를 분류할 때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이 문제되듯, 의미의 기준에서 품사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도 그 분류에 불완전함이 초래된다. 다시 말해 단어란 그 의미를 단일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간혹 하나의 단어에 둘 이상의 의미 기준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기능 중복'이 기능의 기준 하에 품사를 분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의미 중복'은 동일한 기능 범주에 포함된 단어를 다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의미 중복'의 양상이 나타나는 단어들은 동일한 기능의 품사 부류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다만 관계언과 독립언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하나의 기능에 하나의 의미로 분류되는, 즉 의미의 기준 하에 품사가 세분화되지 않는 부류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미 중복'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의미 중복'은 체언, 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식언, 용언 등의 기능 범주에 해당된 단어들에 한한 현상인 것이다. 다음은 '의미 중복'이 나타나는 경우와 그 예시이다.

(35) 명사 - 대명사
ㄱ. 우리는 나만의 이익을 생각해선 안 됩니다. <명사>
ㄴ. 나의 소망. <대명사>
(36) 명사 - 수사
ㄱ. 뜻을 하나로 모으다. <명사>
ㄴ. 필통에서 연필 하나를 꺼냈다. <수사>
(37) 동사 - 형용사
ㄱ. 벌써 새벽이 밝아 온다. <동사>
ㄴ. 햇살이 밝다. <형용사>
(38) 관형사 - 부사
ㄱ. 그는 아직 청춘이다. <관형사>
ㄴ. 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부사>

(35)의 '나'는 명사와 대명사, (36)의 '하나'는 명사와 수사, (37)의 '밝다'는 동사와 형용사, (38)의 '아직'은 관형사와 부사 등의 품사로 모두 그 의미가 한 단어 내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우선 (35)의 '나'와 (36)의 '하나'는 체언의 기능 범주에 해당되는 단어들이다. 이때 체언은 그 의미에 따라 각각 명사, 대명사, 수사로 다시 세분화된다. 그런데 '나'라는 단어는 '자기'를 대신하는 일인칭 대명사로 정의되는 동시에, '자아(自我)'를 뜻하는 단어로서 명사로도 분류된다. 이렇듯 '나'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완전히 구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의 수'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뜻, 마음, 생각 따위가 한결같거나 일치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서 명사로도 정의된다. 이처럼 '나', '하나' 등의 단어는 의미의 기준에서 완전히 분류되지 않고 그 의미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37)의 '밝다'는 '날이 환해지다'라는 뜻에서 동작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불빛이 환하다'라는 뜻에서 상태의 의미 역시 내포하는 단어이다. 용언은 의미의 기준에서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밝다'와 같은 단어는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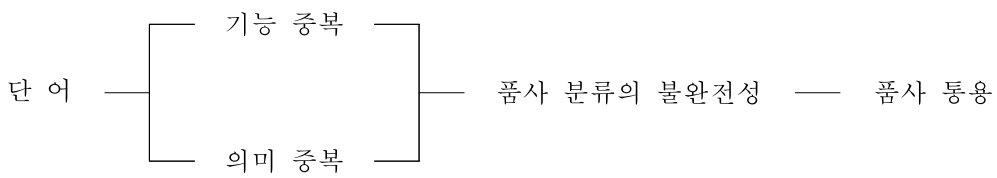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미 범주에 모두 해당됨으로써 단일한 의미로 정의되지 않는다. 또한 (38)의 '아직'은 '체언의 상태에 대한 지속'을 의미하는 관형사인 동시에 '용언에 대한 시간의 부족'을 의미하는 부사로도 정의되는 단어이다. 이 역시 그 의미에 따라 관형사와 수사로 구분되는 수식언의 일반적인 분류로는 설명되지 않는, 즉 두 의미 범주가 모두 포함되는 사례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일부 단어에 한해서는 그 의미가 중복됨에 따라 둘 이상의 품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 역시 '기능 중복'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단일하게 정의할 수 없는 단어들로 인해, 의미의 기준에서 품사가 완전히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의미 중복'은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상 품사 분류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품사 통용'의 원인이 된다.

이렇듯 몇 단어들에서는 품사 분류의 과정에서 기능과 의미의 기준이 중복되어 나타나난다. 이는 애초에 단어란 그 기능과 의미를 단일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기능 중복'과 '의미 중복'으로 설명되는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은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를 포함하게 되는 '품사 통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품사 통용'의 도출 과정은 다음의 그림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된다.

<그림 2>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에 의한 '품사 통용'의 도출 과정



<그림 2>와 같이 단어는 그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 기능과 의미의 기준이 몇 단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고, 그 결과 품사 분류는 불완전하게 설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품사 통용'이 야기되는 것이다. 다만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은 결국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한 필연적 한계이기에, 이에 따른 '품사 통용' 역시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법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다시 말해 '품사 통용'은 그 원인이 필연적인 것이며, 따라서 해소될 수 있는 것도, 해소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사 통용'을 품사 분류의 수정으로써 해소하고자 하는 논의는 많다. 이에 주로 품사 분류에 있어 가장 모호함을 초래하는 의미의 기준을 배제한 재설정의 논의가 대두된다.[61] 예컨대 기존의 9품사를 모두 상위 범주에 포함시켜 보다 적은 수의 품사 부류를 설정함으로써 '품사 통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기준의 배제에는 Tallerman(2005)의 사례가 주로 참고된다. 다음은 Tallerman(2005)에서 제시하는 품사 분류의 기준이다.

(39) ㄱ. 형태(morphology) : 그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다른 형태가 무엇인지의 기준.
ㄴ. 분포(distribution) : 구나 문장에서 그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는지의 기준.
ㄷ. 기능(function) : 구나 문장에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기준.[62]

이때의 '분포'는 넓은 의미에서 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 중 형태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의 제시는 결국 형태와 기능에 한하는 것이며, 의미의 기준이 배제됨에 따라 품사 부류는 보다 축소된다. 예컨대 의미의 기준에서 분류되는 국어의 9품사를 기능 범주의 다섯 부류로 통합시킴에 따라 국어의 품사는 5품사로 축소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품사 분류에 대한 재설정의 차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품사 통용'의 해소를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어의 '품사 통용'은 단지 의미의 범주가 중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중복은 기능의 범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의미의 기준을 배제한 품사 분류가 곧 '품사 통용'의 해소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기능이 품사 분류 기준으로 자리하는 이상 단어는 그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 불완전하게 분류되고, 이에 품사는 통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앞

61) 서태룡(2000)에서 품사 분류의 기준에 대한 재설정을 통해 그 품사를 명사, 동사, 수식사, 어미만으로 설정하자는 논의와 이정택(2012)에서의 보다 큰 범주로의 통합, 김호중(2014)에서의 체언류 품사 분류에 대한 문제 지적 등 품사 분류의 수정을 통해 '품사 통용'을 해소하자는 주장은 대게 의미의 기준을 배제한 품사 부류의 축소와 맥락을 같이한다.
62) M. Tallerman(2005: 32)에서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을 ‘기능 중복’과 ‘의미 중복’으로 구분하여 설명함과 동시에, 형태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중복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만약 품사를 형태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분류할 수만 있다면 단어는 단일한 기준 하에 각각의 범주에 모두 종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단어에 품사 분류 기준이 중복되어 나타나지 않음을 뜻하기에, ‘품사 통용’ 또한 해소되는 것이다. 이처럼 형태의 단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는 사례는 문용(1998)에서 소개하는 O. Jespersen의 품사 분류가 참고 된다. 다음은 O. Jespersen의 품사 분류이다.

(40) ㄱ. 실사 : 속격-wife's / 복수-wives / 복수 속격-wives' 등과 같이 굴절한다.
ㄴ. 형용사 : 비교급-longer / 최상급-longest 등과 같이 굴절한다.
ㄷ. 대명사 : 단수 주격-I, he, she, who / 목적격-me, him, her, whom / 복수 주격-we, they, they / 복수 목적격-us, them, them 등과 같이 격에 따라 어형이 변한다.
ㄹ. 동사 : 부정형-drink, to drink / 명령형-Drink this! / 직설법 현재-I drink / 가정법 현재-drink / 3인칭 단수 현재-drinks / 과거-drank / 과거분사-drunk / 현재분사-drinking / 동명사-drinking 등과 같은 어형을 갖는다.
ㅁ. 불변화사 : 위의 네 가지 품사에 속하지 않는, 즉 어미가 굴절하지 않는 모든 단어가 이 품사 부류에 속한다.[63]

이처럼 O. Jespersen의 품사 분류는 국어에서도 하나의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기능과 의미의 경우 그 범주가 모호한 것이기에, 이러한 기준이 단일하게 제시되어도 ‘품사 통용’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품사 통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면 국어 역시 형태의 단일 기준이 논의될 가치가 있다. 형태는 그 기준이 가시적이며 객관적인 것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한다면 그 범주가 완전히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국어가 교착어(혹은 첨가어)의 형태적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현되기 어렵다.[64]

63) 문용(1998: 36-40)에서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교착어로 설명되는 형태적 특징에 따라 국어는 영어와 달리 어기와 접사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기능 역시 분배된다. 다시 말해 영어의 단어는 각종 용법에 따라 단어의 형태가 교체되지만, 국어는 단어의 형태는 유지하되 접사의 결합을 통해 이러한 용법이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는 형태의 기준에서 어미의 활용이 가능한 가변어와 이를 제외한 모든 단어인 불변어로만 분류된다. 즉 국어의 품사를 형태의 기준만으로 분류했을 경우 두 품사 부류만으로 모든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처럼 품사를 분류하는 의의는 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만약 두 가지 품사 부류만으로 모든 국어의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면, 이는 그 의의에 어긋난 분류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국어의 품사를 O. Jespersen과 같이 형태의 단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품사 분류 기준의 수정을 통해 '품사 통용'을 해소하자는 기존의 논의는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에 대한 해결책인 형태의 단일 기준은 국어의 특징상 품사 분류의 의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품사 통용'은 품사 분류의 재설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굳이 해소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 문법 체계에서는 '품사 통용'을 이유로 품사 분류를 수정하는 것보다, 이러한 품사 분류로 인해 '품사 통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을 단어의 본질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를 다시 '기능 중복'과 '의미 중복'으로 세분화하여 '품사 통용'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이다.

2)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

앞서 견지한 바와 같이 '품사 통용'은 기본적으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에 의한 결과이다. 품사 분류의 수정으로써 이를 해소하자는 논의가 대두되는 것도

64) 교착어란 어기에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들이 결합되어 문법 관계를 표시하거나 단어를 형성하는 언어를 말한다. 또한 영어로 대표되는 굴절어의 경우와 달리 어간에서의 어형교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품사 통용’이 품사의 분류 과정에서 파생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처럼 품사 분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과는 별개로 단어의 문법적인 변화 과정 또한 ‘품사 통용’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이른바 ‘문법화(grammaticalization)’라 일컫는다.

‘문법화(grammaticalization)’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함에 따라 일관되게 정의되지 않으며, 이에 현상에 대한 범위와 대상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된다. 다만 현대의 문법화론은 주로 Jerzy Kurytowicz의 정의를 토대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Jerzy Kurytowicz는 ‘문법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41)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65]

즉 ‘문법화’에서의 ‘문법’ 혹은 ‘문법적’이라는 말은 ‘어휘’ 혹은 ‘어휘적’이라는 말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이성하(1998)에서는 이를 토대로 ‘문법화’를 “의미적으로 완전한 단어들(내용어 혹은 어휘어)이 그 의미를 잃고, 시제・상・양태・서법 등과 같은 문법 기능만을 주로 하는 단어들로 바뀌는 변화.”라 정의하였다. 그 결과 국어에서의 ‘문법화’는 주로 [자립적 어휘소>의존적 어휘소>접어>어미・조사・접미사][66]의 과정을 통해 이해된다. 다만 이러한 ‘문법화’의 과정 중 품사가 변화되는 양상은 ‘조사화’에 한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어미와 접사는 품사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미화’ 혹은 ‘접사화’의 과정에서는 품사가 변화되지 않고 상실된다. 반면, ‘조사화’의 경우 기존 어휘의 품사가 조사로 변화되는 과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단어는 둘 이상의 품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조사화’는 ‘품사 변화’를 포함하는 논의이기에, ‘품사 통용’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다.

---

65) Jerzy Kurytowicz(1975: 52), 이성하(1998: 23)에서 재인용.
66) 안주호(1997: 39)에서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물론 ‘문법화’란 온전히 문법형태소로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문법화’에 대한 논의는 협의적 차원과 광의적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협의적 차원에서의 ‘문법화’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법형태소로의 변화 과정에 대한 논의를 뜻한다. 반면, Hopper & Traugott(1993)에서는 덜 문법적인 것이 더 문법적인 것으로 바뀌는 현상 또한 ‘문법화’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광의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함께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광의적 차원의 논의에 따라 ‘문법화’는 ‘감탄사화’라는 새로운 영역을 포함하게 된다. ‘감탄사화’란 어휘가 ‘주관화(Subjectification)’[67]의 과정을 통해 문법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해당 품사가 감탄사로 이동되는 현상을 뜻한다. 즉 몇 단어에서는 그 의미가 보다 주관적인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의 어휘적 의미를 잃고, 해당 기능마저 감탄사의 것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로 ‘감탄사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법화’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어휘는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담화 표지로서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감탄사의 품사로 변모한다.[68] 즉 ‘감탄사화’ 역시 ‘품사 변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품사 통용’의 원인으로 제시된다.

이렇듯 ‘조사화’와 ‘감탄사화’는 모두 광의적 차원에서 ‘문법화’에 해당되는 개념이며, 나아가 두 현상 모두 품사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품사 통용’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조사화’와 ‘감탄사화’로 대표되는 ‘문법화’의 현상 자체가 ‘품사 통용’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법화’는 어휘의 문법적 변화 과정이다. 즉 ‘문법화’란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개념이기에 그 자체가 통시적인 입장에서 기술된다. 즉 ‘조사화’ 혹은 ‘감탄사화’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모두 통시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단어들이며, 이에 해당하는 품사 역시 변화 중에 놓여있는 것이다. 결국 ‘문법화’란 어휘가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임과 동시에 한 단어에 대한 품사의 변화 과정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문법화’는 ‘품사 통용’이 아닌 ‘품사 변화’

---

67) 이성하(1998: 153)에 의하면 ‘주관화(Subjectification)’란 Traugott(1982, 1986a, 1988), Traugott & König(1991) 등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주로 언어 형태의 의미적 변화를 설명하는 기제로서 언어 형태의 의미가 변화할 때 덜 주관적인 의미에서 점점 더 주관적인 의미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개념의 현상이다. 즉 명제 혹은 외연 위주의 의미에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투사함으로써 점점 주관적인 의미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68) 신철범(2011: 28)에서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시적 현상은 현 시점에서 공시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에 문제가 된다. 예컨대 이러한 변화 과정에 놓인 단어를 사전에 기술하거나, 당장 그 품사가 무엇인지를 논함에 있어 하나의 품사로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만약 '문법화'가 변화의 결과에 따른 현상이었다면, 결론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단어는 변화 이후의 품사로서 정의될 것이다. 하지만 '문법화'란 변화의 과정에 대한 개념이기에 그 품사 역시 변화 이전의 것과 변화 이후의 것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공시적 차원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단어의 품사를 단정 짓지 못한다는 점에서 '품사 통용'의 사례로 해석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법화'라는 통시적 현상을 공시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품사 변화'는 곧 '품사 통용'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품사 통용'은 '문법화'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이러한 '문법화'를 공시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의 또 다른 원인으로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문법화' 중 품사의 변화를 초래하는 두 가지 유형, '조사화'와 '감탄사화'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로 인한 '품사 통용'의 도출 과정을 파악하기로 한다.

(1) 조사화

'조사화'에서는 크게 [명사>조사], [부사>조사]의 양상을 통해 품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예시이다.

(42) 명사 - 조사

ㄱ. 본 대로. <명사>

ㄴ.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조사>

(43) 부사 - 조사

ㄱ.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부사>

ㄴ. 매일같이 지각하다. <조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2)의 ‘대로’[69]와 (43)의 ‘같이’[70]는 각각 [명사>조사]와 [부사>조사]의 관계로 설명되는 ‘조사화’의 사례이다. 우선 (42)의 ‘대로’는 기본적으로 의존명사이다. 의존명사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립명사에 비해 자립성이 떨어지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안주호(1997)에서는 이러한 의존명사의 특징과 관련해서 “어휘어가 기능어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 형태.”라 정의한다. 즉 ‘대로’와 같은 의존명사는 기본적으로 그 어휘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기에 문법형태소로의 변화 과정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의존명사의 ‘조사화’는 위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된다. (42ㄱ)에서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의 뜻으로 쓰이는 체언의 단어이다. 그러나 (42ㄴ)에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의 의미로 실현되며, 체언 뒤에 붙어 그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로 사용된다. 즉 이때의 ‘대로’는 그 의미가 점차 추상적으로 변하고, 해당 기능 역시 보다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명사>조사]로 설명되는 ‘조사화’의 과정에 놓인 단어인 것이다.

한편, (43)의 ‘같이’는 형용사 ‘같다’에 부사 파생 접미사인 ‘-이’가 결합됨에 따라 부사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때 ‘같이’는 조사 또한 통용되는 단어이며, 이러한 통용은 곧 부사가 조사로 ‘문법화’되는 과정과 관련된다. (43ㄱ)에서 ‘같이’는 ‘둘 이상이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의 뜻으로 쓰이며,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의 단

---

69) 박지영(2017: 83-86)에서는 ‘대로’의 ‘문법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ㄱ. 본 대로. -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ㄴ.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즉시.
ㄷ. 달라는 대로 다 주다. -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족족.
ㄹ. 지칠 대로 지친 마음. - (‘-을 대로’ 구성으로 쓰여) 어떤 상태가 매우 심함.
ㅁ. 들 수 있는 대로 들어라. - (‘-을 수 있는 대로’ 구성으로 쓰여)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ㅂ.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 (체언에 접하여)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
ㅅ.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상관 말고 살자. - (체언에 접하여) 따로따로 구별됨.
이처럼 ‘대로’는 기본적으로 의존명사로 분류되는 단어이다. 이후 그 의미가 점차 추상적으로 변하고 분포 환경에도 제약을 갖게 된다. 그 결과 ‘대로’는 기존의 어휘적 의미와 기능을 잃고, 결국 체언에 접하는 환경에서만 사용됨에 따라 문법적으로 의미를 더하는 조사의 품사로 이동되는 것이다.

70) 박지영(2017: 109-111)에서는 ‘같이’의 ‘문법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ㄱ.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ㄴ. 선생님이 하는 것과 같이 하세요. -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ㄷ. 얼음장(과 같이)같이 차가운 방바닥. - 앞말에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
ㄹ. 매일같이 지각하다. -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이처럼 ‘같이’는 기본적으로 부사로 분류되는 단어이다. 이후 어휘적 의미는 다소 추상적인 것으로 전이되고 문장에서의 사용에 있어 일정한 구성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같이’는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잃고, 오로지 앞말을 강조하는 문법적 기능으로 그 사용이 굳어짐에 따라 조사의 품사로 이동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이다. 그러나 (43ㄴ)과 같이 기존의 의미가 점차 추상적인 것으로 변함에 따라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의 뜻을 갖게 되며, 체언 뒤에 붙어 그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로 사용된다. 이처럼 '같이'는 기존의 어휘적 의미를 잃고, 나아가 그 기능 역시 문법적인 것으로 한정됨으로써 [부사>조사]의 '조사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조사화'는 크게 [명사>조사], [부사>조사] 양상으로 나타난다.[71] 이때의 두 가지 양상은 모두 의미의 추상화와 제한적인 환경에서의 분포라는 변화 과정의 공통점을 갖는다. 다시 말해 '조사화'는 기존의 어휘가 보다 추상적인 것으로 전이되고, 보다 제한적인 환경에서 사용됨에 따라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조사화'의 사례는 명사 혹은 부사의 단어가 그 품사를 조사로 달리하는 것이기에 품사의 변화를 초래한다.

(2) 감탄사화

'감탄사화'에서는 크게 [명사>감탄사], [대명사>감탄사], [관형사>감탄사], [부서>감탄사]의 양상을 통해 품사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예시이다.

(44) 명사 - 감탄사

ㄱ. 만세를 부르다. <명사>

ㄴ. 대한 독립 만세! <감탄사>

(45) 대명사 - 감탄사

ㄱ. 선생님께서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니? <대명사>

ㄴ. 뭐, 그런 사람도 다 있단 말이야? <감탄사>

---

71) 이때 '부사-조사'의 통용 사례 중에서 '보다'의 경우는 '조사화'가 아닌 '어휘화'의 결과에 의한 '품사 통용어'임에 주의를 요한다. 남기심・고영근(2011: 190)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보다'는 통시적으로 조사로서 먼저 사용된 단어이며, 이후 그 쓰임이 어휘적인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이다. 즉 '보다'의 경우 '부사-조사'의 통용 사례 중 유일하게 '조사화'의 '문법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 '부사화'의 '역문법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에 '어휘화'라는 별도의 원인이 추가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별도의 원인 제시를 통해 극소수의 예외적 상황을 서술하는 것은 효과적인 논의가 될 수 없기에, 이 연구에서는 '어휘화'의 추가적인 원인을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단 '보다'가 '조사화'에 관한 예외적 사례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후 관련 유형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 구분을 명확히 하기로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6) 관형사 - 감탄사

ㄱ. 까짓 고생쯤은 문제가 아닙니다. <관형사>

ㄴ. 까짓, 내가 하지 뭐. <감탄사>

(47) 부사 - 감탄사

ㄱ. 아니 먹다. <부사>

ㄴ. “무슨 일 있니?”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감탄사>

(44)의 ‘만세’는 [명사>감탄사], (45)의 ‘뭐’는 [대명사>감탄사], (46)의 ‘까짓’은 [관형사>감탄사], (47)의 ‘아니’는 [부사>감탄사]의 관계로 설명되는 ‘감탄사화’의 사례이다. 우선 (44)의 ‘만세’는 기본적으로 (44ㄱ)과 같이 명사로 쓰이는 단어이며, 그 의미는 ‘바람이나 경축, 환호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는 말에 따라 행하는 동작’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사의 단어는 그 의미가 점차 주관적으로 사용되어 이후 (44ㄴ)과 같이 ‘바람이나 경축, 환호의 느낌으로 외치는 말’이라는 주관적 표현 혹은 외침 등을 뜻하는 감탄사로 쓰이게 된다. 결국 ‘만세’는 기존의 어휘적 의미를 잃고, 그 의미가 주관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장에서 담화 표지의 기능 갖게 된다. 이때의 담화 표지란 곧 감탄사의 품사로 표현되는 것이기에 결국 ‘만세’는 [명사>감탄사]의 과정에 해당하는 단어인 것이다.

한편, (45)의 ‘뭐’에서도 이러한 ‘감탄사화’의 양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45ㄱ)에서 ‘뭐’는 ‘무어’의 준말로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지시’를 뜻하는 지시대명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명사의 단어는 (45ㄴ)에서처럼 ‘놀랐을 때 내는 소리’라는 화자의 주관적 표현으로 쓰이게 된다. 이때 주관적 표현의 ‘뭐’는 곧 담화 표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감탄사의 품사 범주에 포함되는 단어이다. 즉 이 역시 기존 어휘의 품사가 감탄사로 변화하는 ‘감탄사화’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감탄사의 ‘뭐’는 기존의 어휘적 의미에 대한 유연성이 거의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사의 단어와 서로 다른 단어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때의 ‘뭐’는 ‘모르는 사실에 대한 지시’에서 ‘몰랐던 사실에 대한 놀람’으로 그 의미가 주관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 사용이 점차 ‘대답, 반박, 어리광, 체념’ 등으로 층위를 달리하여 실현됨에 따라 의미의 유연성이 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지게 된 것이다.[72] 이에 '뭐' 또한 [대명사>감탄사]의 양상을 보이는 '감탄사화'의 사례로 봐야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감탄사화'는 수식언의 단어들에서도 나타나는데, (46)의 '까짓'과 (47)의 '아니'가 대표적이다. '까짓'은 기본적으로 (46ㄱ)과 같이 '별 것 아닌, 또는 하찮은'의 뜻으로 사용되는 관형사의 단어이다. 이때의 '까짓'은 그 의미의 기본적인 맥락이 유지된 상태에서 보다 주관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46ㄴ)처럼 '별 것 아니라는 뜻으로, 무엇을 포기하거나 용기를 낼 때 하는 말'이라는 화자의 주관적 의지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 즉 감탄사로 쓰이는 것이다. 결국 '까짓'은 [관형사>감탄사]의 양상을 보이는 '감탄사화'의 사례이다. 나아가 '아니' 또한 (47ㄱ)과 같이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기존의 부사적 의미가 (47ㄴ)에서는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이라는 주관적 표현의 의미로 변화한다.[73] 그 결과 '아니'의 품사는 [부사>감탄사]로의 변화의 과정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감탄사화'는 크게 [명사>감탄사], [대명사>감탄사], [관형사>감탄사], [부사>감탄사] 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이러한 양상 모두 기존의 의미가 보다 주관적인 것으로 변함에 따라 문장에서 담화 표지의 기능을 갖게 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다시 말해 '감탄사화'라는 것은 의미의 주관화에 따른 문법적 변화의 과정이며, 동시에 담화 표지의 한정된 기능이 부여되는 과정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감탄사화' 역시 결과적으로는 감탄사로의 '품사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품사 통용'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듯 '문법화' 중 '조사화'와 '감탄사화'에 해당되는 몇 단어들에서는 기존의 품사가 각각 조사와 감탄사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품사 변화'는 공시적인 차원에서 '품사 통용'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품사 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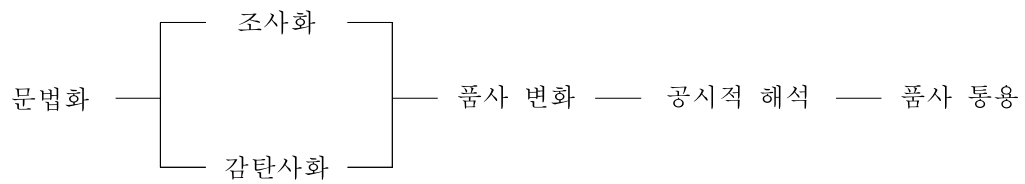
72) '뭐'의 감탄사적 의미에 대한 각각의 층위는 다음의 예시를 통해서 확인된다.
ㄱ. 뭐, 그렇게 트집 잡을 필요가 있어? - 대답
ㄴ.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아? - 반박
ㄷ. 심심해서 한번 들렸지, 뭐. - 어리광
ㄹ.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 체념

73) 다만 '아니'의 감탄사적 의미는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뿐만 아니라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예컨대 '아니, 그럴 수가 있니?' 혹은 '아니, 벌써 도착했니?'와 같은 문장에서는 전자의 의미보다는 후자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앞서 언급한 '뭐'의 경우와 같이 감탄사적 의미가 확장되어 층위를 달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이때의 '아니'는 '부정 혹은 반대'의 의미가 주관적으로 사용되어 감탄사로 쓰이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감탄 혹은 의아'의 의미로 그 층위를 달리하여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용’의 도출 과정은 다음의 그림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된다.

<그림 3>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에 의한 ‘품사 통용’의 도출 과정



<그림 3>과 같이 ‘문법화’ 중 ‘조사화’와 ‘감탄사화’는 ‘품사 변화’를 야기한다. 나아가 ‘품사 변화’는 결국 변화의 결과에 대한 개념이 아닌 변화의 과정에 대한 개념이기에, 해당 단어는 변화 이전의 품사와 변화 이후의 품사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현 시점에서 공시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에 ‘품사 통용’의 사례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품사 통용’은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렇듯 ‘품사 통용’은 그 원인이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과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으로 제시된다. 전자는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 ‘기능 중복’ 혹은 ‘의미 중복’과 같이 해당 범주의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품사 분류가 불완전하게 설정되어 ‘품사 통용’이 야기되는 것을 뜻한다. 한편, 후자의 경우 ‘조사화’와 ‘감탄사화’로 설명되는 ‘문법화’의 사례가 공시적인 차원에서 ‘품사 통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음에 관한 것이다. 결국 두 가지 경우 모두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품사 통용’의 원인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따라 ‘품사 통용’의 원인을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과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이라 재기술한다. 이는 기존의 ‘품사 통용’이 그 원인을 올바르게 규명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기준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원인의 제시를 통해 해당 사례의 분류에는 분명한 기준이 적용되며, 그 결과 ‘품사 통용’은 보다 논리적인 체계를 갖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품사 통용의 분류

기존의 '품사 통용'은 해당 사례를 유형화함에 있어 '-류(流)'의 표기를 사용한다. 이는 남기심・고영근(1992/2011)에서 영문법의 기호화 표기를 따라 제시한 것으로 예컨대 명사와 관형사가 통용되는 사례는 '명관류', 명사와 부사가 통용되는 사례는 '명부류' 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통용되는 둘 이상의 품사에 대한 위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연구에서 재기술하는 '품사 통용'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의 성질을 갖는다. 다시 말해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과정에서 공유에 의한 통용과 이동에 의한 통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런데 '-류(流)'의 형식은 품사의 이동, 즉 [+방향성]의 사례에 한해서만 만족하는 것이다. 품사의 공유, 즉 [-방향성]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포함되는 둘 이상의 품사에 대한 위계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류(流)'의 형식은 적용될 수 없다. 결국 기존의 유형에 대한 표기는 [±방향성]으로 정의되는 개념에 의해 수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의 유형을 '-류(流)'가 아닌 'a-b'의 형식으로 표기하여 통용되는 품사 간에 별도의 위계를 두지 않는다.[74]

나아가 이 연구는 해당 유형의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품사 통용'의 분류 자체도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에서 '품사 통용'은 그 분류가 주로 품사 개수에 국한되어 제시된다. 물론 품사 개수에 따른 유형의 분류 역시 해당 사례를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방법이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다소 형식적인 면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분류 방법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근본적인 방법이란 문법 현상에 대한 원인을 기준 삼는 분류의 방식을 뜻한다.

기존의 '품사 통용'은 그 원인이 올바르게 규명되지 않아 해당 사례를 분류함에 있어 기준이 부재하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어떠한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변

74) 물론 [+방향성]으로 설명되는 사례의 경우 기존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 다만 해당 사례에 대한 표현 방법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a-b'와 같은 형식을 통해 해당 사례를 분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a와 b에는 각각 통용 관계에 있는 품사의 명칭을 제시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별하지 못하며, 이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다만, 여기서는 앞서 그 원인을 재기술한 바, 이를 기준하여 해당 사례를 분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범주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품사 개수 외에도 '방향성'의 기준이 추가되어 '품사 통용'의 사례를 분류한다. 전자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논의된 방식으로, 이에 대한 이론적 보충을 통해 해당 사례를 재분류할 것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새롭게 제시되는 방식으로, 앞서 논의된 '품사 통용'의 원인을 기준으로 삼는 분류이다. 이때 해당 원인을 통틀어 '방향성'이라 칭하는 이유는 각 원인에 의한 '품사 통용'의 사례가 '방향성'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은 품사의 공유, 즉 [-방향성]의 사례에 기준이 되며,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은 품사의 이동, 즉 [+방향성]의 사례에 기준이 된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해당 원인을 기준으로 하는 사례들은 곧 '방향성'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을 품사 개수에 따른 분류와 더불어 '방향성'에 따른 분류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이때 해당되는 사례들은 그 유형을 기존의 '-류(流)'의 형식이 아닌 'a-b'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기로 한다.

1) 품사 개수에 따른 분류

품사 개수에 따른 분류는 기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통용되는 품사의 개수가 최대 4개까지 나타난다. 즉 그 개수에 따라 '두 품사의 통용', '세 품사의 통용', '네 품사의 통용'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해당 사례의 경우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된다. 그 까닭은 각 논의마다 '품사 통용'의 범주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품사 통용'은 그 사례를 변별할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범주의 설정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앞서 '품사 통용'의 원인을 논의함에 따라 해당 사례를 변별할 기준을 마련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그 기준에 한한 단어만을 대상에 포함한다. 즉 제시된 원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는 분류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품사 개수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7> 품사 개수에 따른 '품사 통용'의 분류

품사 개수	유형	예시
두 품사	명사 - 대명사	나
	명사 - 수사	하나
	명사 - 관형사	가공적, 사교적, 타협적, 학문적 등
	명사 - 부사	가급적, 평생, 처음, 서로, 모두 등
	명사 - 감탄사	만세, 경례, 기준 등
	명사 - 조사	대로, 만큼, 뿐 등
	대명사 - 관형사	이, 그, 저 등
	대명사 - 부사	여기, 거기, 저기 등
	대명사 - 감탄사	무어, 뭐 등
	수사 - 관형사	여섯, 일곱, 여덟 등
	형용사 - 동사	크다, 밝다, 붉다 등
	관형사 - 부사	오직, 겨우, 아직 등
	관형사 - 감탄사	까짓
	부사 - 조사	마저, 같이, 보다 등
	부사 - 감탄사	아니, 아차, 어쩜 등
세 품사	명사 - 수사 - 관형사	첫째, 둘째, 셋째 등
	명사 - 관형사 - 부사	비교적
	명사 - 부사 - 감탄사	정말, 진짜 등
네 품사	명사 - 수사 - 관형사 - 부사	만만
	명사 - 관형사 - 부사 - 감탄사	바로

<표 7>과 같이 '품사 통용'은 우선 품사 개수에 따라 '두 품사의 통용', '세 품사의 통용', '네 품사의 통용'으로 분류된다. 이때 각 분류에 해당되는 사례를 분석하면 우선 '두 품사의 통용'은 '명사-대명사, 명사-수사, 명사-관형사, 명사-부사, 명사-감탄사, 명사-조사, 대명사-관형사, 대명사-부사, 대명사-감탄사, 수사-관형사, 형용사-동사, 관형사-부사, 관형사-감탄사, 부사-조사, 부사-감탄사' 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총 15종의 사례가 포함된다. 또한 ‘세 품사의 통용’에는 ‘명사-수사-관형사, 명사-관형사-부사, 명사-부사-감탄사’ 등 총 3종의 사례가 해당되며, ‘네 품사의 통용’에서는 ‘명사-수사-관형사-부사, 명사-관형사-부사-감탄사’ 등 총 2종의 사례가 나타난다.

각 사례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이미 ‘품사 통용어’로 인정되어 사전에 하나의 표제어로 기술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전 기술에서 ‘품사 통용어’로 인정되지 않는 단어들도 존재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위의 단어들과 이에 해당되는 여러 단어들 중 앞서 제시된 ‘품사 통용’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는 모두 해당 사례로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 중 기존에 ‘품사 통용어’로 인정되지 않던 단어의 경우 사전에서 추가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반대로 기존에 인정되던 ‘품사 통용’의 사례 중 분류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바로 ‘명사-동사’의 통용 사례가 그것이다. 기존의 ‘품사 통용’에서는 ‘명사-동사’의 통용 사례를 인정하며, 해당 예시로 ‘가물-가물다, 뭉치-뭉치다’ 등 명사와 동사 어간이 동일한 단어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용의 원인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뤄진다. 이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사례이나, 동사 어간만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품사 통용’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결국 기존의 ‘품사 통용’은 그 범주를 다소 무리하게 설정함으로써 이처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함에도 해당 사례로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말 그대로 이유를 밝힐 수 없는 사례이기에 옳은 분류라 볼 수 없다. 물론 중세국어에서 어간이 자립해서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이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명확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공시적인 시점에서 동사 어간은 자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는 그 원인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 동사 어간만을 하나의 형태라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이는 ‘품사 통용’의 사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품사 통용’은 품사 개수에 따라 <표 7>과 같이 분류되며, 이를 통해 ‘품사 통용’의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각 유형들의 형식적인 구분이 가능해 진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방향성에 따른 분류

‘방향성’에 따른 ‘품사 통용’의 분류는 기존에 별도로 제시된 바가 없다. 여기에서 이러한 분류가 논의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연구가 기존의 개념을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의 통합적인 제시에 따라 품사의 공유와 이동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다시 정의하기 때문이다. 즉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으로 정의되는 ‘품사 통용’의 개념은 공유와 이동, 즉 ‘방향성’에 따른 세부 유형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각 ‘방향성’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앞서 제시된 ‘품사 통용’의 원인이다.

앞선 논의를 통해 ‘품사 통용’에는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과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이라는 원인이 제시된다. 전자의 경우 품사의 공유에 한한 원인이며, 후자의 경우 품사의 이동에 한한 원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각 원인들은 [-방향성]과 [+방향성]의 사례에 기준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품사 통용’의 개념을 품사의 공유와 이동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통용 과정에 해당되는 원인을 각각 규명해 냄으로써 ‘방향성’에 따른 세부 유형의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품사 개수에 따라 범주화된 사례들은 다시 ‘방향성’의 기준 하에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표 8> ‘방향성’에 따른 ‘품사 통용’의 분류

방향성	유형	원인
[-방향성]	명사 - 대명사	품사 통용의 불완전성
	명사 - 수사	
	명사 - 관형사	
	명사 - 부사	
	대명사 - 관형사	
	대명사 - 부사	
	수사 - 관형사	
	형용사 - 동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형사 - 부사	
	명사 - 수사 - 관형사	
	명사 - 관형사 - 부사	
	명사 - 수사 - 관형사 - 부사	
[+방향성]	명사 - 감탄사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
	명사 - 조사	
	대명사 - 감탄사	
	관형사 - 감탄사	
	부사 - 조사	
	부사 - 감탄사	
	명사 - 부사 - 감탄사	
	명사 - 관형사 - 부사 - 감탄사	

<표 8>과 같이 품사 개수에 따라 분류된 사례들은 다시 '방향성'의 기준에서 크게 '[-방향성]의 통용'과 '[+방향성]의 통용'으로 분류된다. 이때 각 분류에 해당되는 사례를 분석하면 우선 '[-방향성]의 통용'에는 '명사-대명사, 명사-수사, 명사-관형사, 명사-부사, 대명사-관형사, 대명사-부사, 수사-관형사, 형용사-동사, 관형사-부사, 명사-수사-관형사, 명사-관형사-부사, 명사-수사-관형사-부사' 등 총 12종의 사례가 포함된다. 또한 '[+방향성]의 통용'에는 '명사-감탄사, 명사-조사, 대명사-감탄사, 관형사-감탄사, 부사-조사, 부사-감탄사, 명사-부사-감탄사, 명사-관형사-부사-감탄사' 등 총 8종의 사례가 해당된다.

한편, '[+방향성]의 통용'에 포함된 사례 중 '부사-조사'의 유형에는 예외적으로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에 의해 통용된 단어가 아닌 것이 있는데, '보다'와 같은 단어가 바로 그것이다. 앞선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 중 '조사화'를 논의함에 있어 '보다'는 '부사-조사'의 통용 사례 중 유일하게 조사를 기원으로 하는 단어임을 확인한 바 있다. 즉 '보다'는 '부사-조사'의 통용어인 것은 맞으나, 그 이동의 과정이 [부사>조사]가 아닌 [조사>부사]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방향성]의 통용에는 해당되나, 그 원인이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이 아닌 '어휘화의 공시적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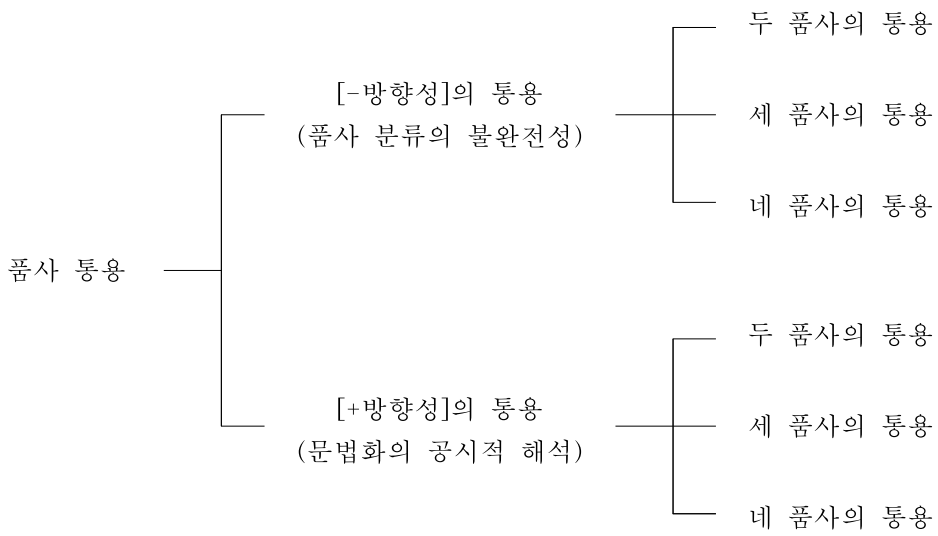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석’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의 원인 제시를 통해 극소수의 예외적 상황을 서술하는 것은 효과적인 논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원인의 예외적 사례로서 제시할 뿐, 편의상 별도의 유형을 추가하지는 않는다.

이에 ‘품사 통용’은 ‘방향성’에 따라 <표 8>과 같이 분류되며, 이를 통해 해당 사례는 두 원인을 기준하여 범주화된다. 동시에 이때의 사례들은 그 유형이 ‘[-방향성]의 통용’과 ‘[+방향성]의 통용’으로 구분됨으로써, 기존의 ‘품사 통용’은 ‘품사 전성’과 통합적으로 제시된다.

이렇듯 ‘품사 통용’의 사례들은 품사 개수와 ‘방향성’의 기준 하에 일정한 규칙을 갖고 분류된다. 나아가 이러한 분류는 앞서 논의된 ‘품사 통용’의 개념과 원인에 의해 논리적으로 구축된 체계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다.

<그림 4> ‘품사 통용’의 구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맺음말

‘품사 통용’은 이를 수용하느냐 혹은 수용하지 않느냐의 대립 속에서 주로 논의되어왔다. 그 결과 반대의 견해에 대한 문제 지적이 연구의 주를 이루었으며, 정작 ‘품사 통용’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의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기존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개관하고 그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근거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은 주로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 그리고 ‘영 파생’을 통해 정의된다. 이때의 견해들은 모두 품사의 중복에 대한 논의이나, 관점을 조금씩 달리함에 따라 일치되지 않고 대립된다. ‘품사 통용’은 해당 현상을 품사의 공유로 판단하고, ‘품사 전성’은 이를 품사의 이동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영 파생’에서는 앞선 두 견해와 달리 이를 파생의 관계로 보고 한 단어내의 품사 중복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상은 세 논의 모두 이론적인 한계가 분명하여 해당 현상을 명확하게 정의해 내지 못하는 것이다.

먼저 ‘품사 통용’의 경우 ‘기준의 부재’와 ‘방향성의 부재’라는 두 가지 이론적 한계를 갖는다. 전자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올바르게 규명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례를 분류하는 데 있어 기준이 부재하는 한계를 말하며, 후자는 해당 논의가 품사의 공유로 정의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를 말한다. 더 정확히는 경우에 따라 [+방향성]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품사 통용’은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논의이기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품사 전성’에서는 기준 품사를 설정함에 있어 한계를 보이며, ‘영 파생’에서는 ‘영 접사’의 설정과 적용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나아가 ‘품사 통용’의 경우 규범으로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논의이기에, 이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이론적 한계는 곧 실용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의 실용적 문제는 크게 사전 기술과 학교 문법의 영역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전자의 문제는 '품사 통용'의 임의적 수용, '품사 통용어'의 '동음이의어' 처리, 사전별 '품사 통용어' 기술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후자의 문제는 학교 문법에서 '품사 통용'을 수용하는 동시에, 이에 반하는 '체언 수식 부사'를 함께 포함하는 교육적 모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품사 통용'이 갖는 이론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품사 통용'은 이론적으로 모호하여 해당 현상을 명확하게 정의해 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사전 기술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교육적으로도 모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품사 통용'은 이론적인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에 한계를 갖는 논의이며, 이러한 한계는 곧 해당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3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품사 통용'의 이론적 한계와 실용적 문제를 보완하고자 해당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품사 통용'은 개념, 원인, 분류 등의 정리를 통해 보다 논리적인 체계 하에 재기술된다. 우선 '품사 통용'의 개념은 기존의 '품사 통용'이 갖는 '방향성의 부재'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다시 정의된다. 기존의 '품사 통용'은 그 정의에 따라 '방향성'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해당 개념을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이라 정의한다. 즉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기존의 '품사 공유'에 대한 사례뿐만 아니라 '품사 이동'에 대한 사례까지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품사 통용'은 그 성질이 기존의 [-방향성]에서 [±방향성]으로 재설정된다.

다음으로 '품사 통용'의 원인에는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과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이 제시된다. 기존의 '품사 통용'은 그 원인을 '품사 분류의 임의성'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품사 분류에는 분명한 기준이 존재하므로 그 자체가 임의적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처럼 분명한 기준이 존재함에도 단어는 본질적으로 균일하게 분류될 수 없는 것이기에, 몇 단어들에서 '기능'과 '의미'가 중복되어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품사 통용'의 원인은 '임의적인 품사 분류'가 아닌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과는 별개로 단어의 문법적 변화 과정 또한 '품사 통용'의 원인이 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그리고 이때의 문법적 변화의 과정을 바로 '문법화'라 한다. 그런데 '문법화'는 그 자체가 '품사 통용'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는다. '문법화'는 변화의 과정에 대한 개념이기에, 문법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품사는 통용되는 것이 아닌 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품사 변화'는 공시적인 해석에 의해 '품사 통용'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확히는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품사를 달리하게 되는 '문법화'의 종류는 '조사화'와 '감탄사화'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품사 통용'에 해당하는 사례를 품사 개수와 '방향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우선 품사 개수에 따라 '품사 통용'은 크게 '두 품사의 통용', '세 품사의 통용', '네 품사의 통용'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를 다시 '방향성'의 기준 하에 '[-방향성]의 통용'과 '[+방향성]의 통용'으로 분류함으로써 해당 사례들은 일정한 기준 하에 범주화된다. 그리고 이때 '방향성'에 따른 분류라는 것은 곧 '품사 통용'의 원인으로 제시된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과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이다. 결과적으로 전자는 품사의 공유, 즉 [-방향성]의 사례에 한한 기준이 되며, 후자는 품사의 이동, 즉 [+방향성]의 사례에 한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품사 통용'은 [±방향성]의 개념으로 다시 정의되고, 그 원인 역시 '품사 공유'에 대한 것과 '품사 이동'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이러한 원인을 기준하여 해당 사례를 분류함으로써 '품사 통용'에 대한 논의는 보다 논리적인 체계 하에 재기술된다. 다음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리된 '품사 통용'의 내용이다.

(48) ㄱ. 품사 통용의 개념 :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 [±방향성]
ㄴ. 품사 통용의 원인
① 품사 분류의 불완전성(품사 공유) : 기능 중복 / 의미 중복
② 문법화의 공시적 해석(품사 이동) : 조사화 / 감탄사화
ㄷ. 품사 통용의 분류
① [-방향성]의 통용 : 두 품사의 통용 / 세 품사의 통용 / 네 품사의 통용
② [+방향성]의 통용 : 두 품사의 통용 / 세 품사의 통용 / 네 품사의 통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렇듯 ‘품사 통용’은 비판적 고찰의 차원에서 그 논의가 보충됨으로써 기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방향성의 부재’라는 한계는 ‘품사 전성’과의 통합을 통해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보완되며, ‘기준의 부재’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기준하여 해당 사례를 분류해 냄으로써 보완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품사 통용’은 보다 명확하게 기술되고,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품사 통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는 이번 연구는 결국 하나의 문법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기존의 연구는 해당 현상의 옳고 그름을 논하며, 경우에 따라 현상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때 부정의 근거로는 해당 논의가 갖는 이론적 모호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모호함이 곧 현상 자체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단지 ‘품사 통용’을 통해 해당 현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을 뿐, 품사의 중복 현상은 필연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품사 통용’에 대한 이론적 모호함은 관련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현상에 대한 부정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름대로의 논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 결과이다.

물론 이 연구를 통해 ‘품사 통용’에 대한 논의를 전부 마친 것은 아니다. 우선 ‘품사 통용’의 실용적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적용하는 차원의 논의는 부족했다고 본다. 나아가 ‘품사 통용’을 이해함에 있어 단어에 대한 연구 또한 더욱 필요해 보인다. 당연하게도 품사론의 영역에서는 단어를 제외하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이는 ‘품사 통용’을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1. 사전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국립국어연구원,『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연세 한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8.

2. 교육과정 및 교과서(연도순)

교육부,『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김진수 외,『중학교 국어 1-1』, 비상교육, 2018.

김진수 외,『중학교 국어 1-1 교사용 지도서』, 비상교육, 2018.

노미숙 외,『중학교 국어 1-1』, 천재교육, 2018.

노미숙 외,『중학교 국어 1-1 교사용 지도서』, 천재교육, 2018.

박영목 외,『중학교 국어 1-1』, 천재교육, 2018.

박영목 외,『중학교 국어 1-1 교사용 지도서』, 천재교육, 2018.

이삼형 외,『중학교 국어 1-1』, 지학사, 2018.

이삼형 외,『중학교 국어 1-1 교사용 지도서』, 지학사, 2018.

이도영 외,『중학교 국어 1-2』, 창비, 2018.

이도영 외,『중학교 국어 1-2 교사용 지도서』, 창비, 2018.

민현식 외,『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2019.

민현식 외,『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사용 지도서』, 천재교육, 2019.

방민호 외,『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미래엔, 201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방민호 외,『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사용 지도서』, 미래엔, 2019.
이관규 외,『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비상교육, 2019.
이관규 외,『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사용 지도서』, 비상교육, 2019.
이삼형 외,『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지학사, 2019.
이삼형 외,『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사용 지도서』, 지학사, 2019.
최형용 외,『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창비, 2019.
최형용 외,『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사용 지도서』, 창비, 2019.

3. 단행본

고영근・구본관,『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18.
구본관 외,『한국어 문법 총론 1』, 집문당, 2015.
김창섭,『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2008.
남기심・고영근,『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11.
문용,『영어품사론』, 한국문화사, 1998.
송철의,『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1992.
안주호,『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1997.
윤평현,『국어의미론』, 역락, 2008.
이성하,『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1998.
이익섭,『국어학개설』, 학연사, 2013.
이익섭・채완,『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1999.
임지룡 외,『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2016.
최현배,『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84.
최형용,『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태학사, 2003.
최형용,『한국어 형태론』, 역락, 2016.
홍기문,『조선문전요령・조선문법연구』,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15책, 탑출판사, 197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학위논문

김은진,「국어과의 품사 통용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김호중,「국어 명사와 대명사, 명사와 수사의 품사 통용」,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박지영,「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신철범,「국어 감탄사의 담화표지 기능 연구 : 화자의 담화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양지애,「국어 형용사-동사 통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엄혜성,「탐구 중심 국어 품사 통용어 교육 내용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임지현,「한국어의 특이파생법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한희정,「국어 품사 통용의 사전 기술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5. 학술지

구본관,「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형태론』, Vol.12 No.2, 박이정, 2010, 179쪽-199쪽.

김슬옹,「이른바 “품사통용어”의 사전 기술 연구 : 품사론의 재검토를 위하여」,『사전편찬학 연구』, Vol.4 No.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1992, 104쪽-169쪽.

김한샘,「한국어교육학 : 품사 통용 교육 현황 분석 연구 - 문법 기술과 사전 정보의 분석을 기반으로」,『새국어교육』, Vol.100,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49쪽-284쪽.

김홍범・전후민,「학교문법의 개념 정립을 위한 “독서와 문법” 교과서와 지도서 분석 - “단어”를 중심으로」,『문법 교육』, Vol.19, 한국문법교육학회, 2013, 36쪽-66쪽.

남수경,「품사 통용의 몇 문제」,『개신어문연구』, Vol.33, 개신어문학회, 2011, 105쪽-127쪽.

박영환,「주시경의 품사전성론」,『한남어문학』, Vol.7 No.8,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82, 51쪽-71쪽.

서태룡,「국어 형태론에 기초한 통사론을 위하여」,『국어학』, Vol.35, 국어학회, 2000, 251쪽-285쪽.

서태룡,「국어 품사 통용은 이제 그만」,『이병근선생 퇴임 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2006, 359쪽-390쪽.

서태룡,「명사는 동사를 위한 존재다」,『국어학』, Vol.66, 국어학회, 2013, 109쪽-135쪽.

손성락,「품사 통용의 유형 및 사전 기술 :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 기술을 중심으로」,『나랏말쌈』, Vol.27,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2012, 82쪽-112쪽.

엄혜성・오현아,「품사 통용어 교육을 위한 품사 개념 및 품사 통용어에 관한 학습자 인식 연구」,『언어학연구』, No.40, 한국중원언어학회, 2016, 141쪽-165쪽.

이현희.「범주로서의 품사와 품사 전형성 : 명사와 그 중복 범주를 대상으로」,『한국학연구』, Vol.3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359쪽-384쪽.

이정택,「품사분류와 “품사의 통용”」,『인문논총』, Vol.24,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57쪽-69쪽.

최형기,「품사 통용을 이용한 국어 품사 교육 방안」,『언어학』, Vol.19 No.3, 대한언어학회, 2011, 293쪽-313쪽.

한정한,「통사 단위 단어」,『국어학』, Vol.60, 국어학회, 2011, 211쪽-232쪽.

한정한・한희정,「국어사전에서의 품사 통용 정보 기술 방안」,『한국어 의미학』, Vol.40, 한국어의미학회, 2013, 441쪽-468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 해외 논저

M. Tallerman,『Understanding syntax』, Hodder Arnold, 2005.

Paul J. Hopper & Elizabeth Closs Traugott,『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김은일・박기성・채영희 역,『문법화』, 한신문화사, 199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critical consideration on the multicategory of word class in korean language

Heo, Won-young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Dae-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ally examine the so-called 'multicategory of word class' in which two or more word class are shared in one word. The existing discussions of 'multicategory of word class' have been theoretically ambiguous and failed to clearly define the phenomenon. Furthermore, these theoretical limitations have led to problems in dictionary production and school grammar.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limits of the existing discussions and re-describe the phenomenon.

In Chapter 2, the existing research and limitations of 'multicategory of word class' were reviewed. In addition to 'multicategory of word class', duplication of word class is explained by 'transformation of word class' and 'derivation'. Among these, 'multicategory of word class' has the theoretical limits of 'lack of standard' and 'lack of orientation'. The former refers to the phenomena that a non-identified cause of a state results in the lack of criteria in classification. The latter refers to the phenomena that not considering the 'orientation' in a conceptual definition leaves room for a few exceptional cases. These theoretical limitations soon lead to practical issues. 'multicategory of word class' is 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plied to dictionary production and school grammar as a concept of norm for the given phenomenon. However, 'lack of standard' in 'multicategory of word class' does not guarantee the consistency of 'multicategory of word class' in t he dictionary production, and it causes a grammatical error represented as 'ad verb modifying noun' in school grammar. That is, the theoretical ambiguity of 'multicategory of word class' brings about the practical issues and confusion i n its actual application, which calls for a critical review of the existing discus sions.

In Chapter 3, the given phenomenon was re-described based on a critical a pproach to 'multicategory of word class'. First, the concept was redefined to c ompensate for the limits of 'lack of orientation' in the existing discussions; th e concept of 'multicategory of word class' was defined as 'a phenomenon invo lving more than two word class in a word', which was theoretically integrate d with the opposing idea of 'transformation of word class'. The concept was reset to [±orientation], not the existing [-orientation], and could include both i nstances of sharing word class as well as shifting word class. Next, the reas ons, which included 'incompleteness of classification of word class' and 'synch ronic interpretation of grammaticalization', were re-addressed to supplement th e limits of 'lack of standard' in the existing discussions. The former explains that the functions and meanings of words that cannot be uniformly defined re stricts the applicability of a single word class, which ultimately ends up the 'multicategory of word class'. Apart from the intrinsic character of words, the latter means that the change of pars of speech is understood as its multicateo ry, since the transitive process of word change is interpreted chronologically. The study also classified these cases in a basis of such causes. In addition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number of word class, classification based on 'orientat ion' was added to the examples of 'multicategory of word class'.

As discussed above, the study critically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 ing discussions on 'multicategory of word class' and re-described the given p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enomenon. Considering the stagnation of the discussions on ‘multicategory of word class’, the phenomenon requires more fundamental approach. In this cont ex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Keywords : multicategory of word class, lack of standard, lack of orientatio n, dictionary production, school grammar, the incompleteness of word class, the synchronic interpretation of grammaticalizati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